No.1 시니어 전문 케어
센터메디컬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기독일보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March 7 2025 Vol. 951

5일 '재의 수요일' 사순절 시작

1. 재의 수요일

지난 주일(3월 2일)로 주현절 후 여덟 번째 주일이 끝나고, 3월 5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다.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이다.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 그날을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혹은 '참회 수요일'이라 부른다. 이때부터 교회의 스톨(전례색)도 흰색에서 보라색으로 바꿔 사용한다.

가톨릭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고기를 먹지 않았다. 그래서 매년 사순절 직전 일정 기간 동안 고기를 실컷 먹는 축제를 벌여 왔는데, 그것이 카니발(사육제: 고기를 감사하는 축제)이다. 삼바 축제로 유명한 브라질 리우 카니발도, 가면 축제로 유명한 베네치아 카니발도 다 그 시기에 행해진다. 그래서 사순절 직전에 모두 축제의 막을 내린다.

사순절 시작일에 이마에 재를 발랐던 의식은 10세기 경부터 시작됐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한동안 잊힌 의식이었다가, 요즘처럼 다시 일반화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고 한다.

재의 수요일 예배에서 목회자는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만든 재를 성도들의 이마에 물에 적신 재로 십자 성호를 그으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하라(창 3:19)"고 말한다. 인간의 죄와 유한성, 인생의 무상함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것을 깨우치는 것이다. ➔ 2면에서 계속



제106주년 3.1절 연합기념식이 2025년 3월 1일(토) 오전 11시 남가주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캐런 배스 LA시장, 헤더 허트 10지구 LA시의원, 존 리 12지구 LA시의원, 지미 고메스 연방하원 의원 등 주요 정치인들과 로버트 안 LA한인회장, 김영완 LA총영사 한인 리더들을 비롯해 여러 한인 단체 소속 청소년들이 자리에 함께했다.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삼창을 했다. (관련 기사 2면). ⓒ기독일보

한인경제 위한 기도와 연대 … LA 상공인·목회자 한자리

조선일보 LA 주관 미주성시화 운동본부 다민족연합기도운동 후원



지난 2월 28일 오전, 옥스퍼드팔레스 호텔에서 남가주 한인 지도자 및 상공인 초청 조찬기도회가 열렸다.

지난 28일 오전, 옥스퍼드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남가주 한인 지도자 및 상공인 초청 조찬기도회의 주강사인 김준식 목사(남가주 샬롬교회)는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답게 경제가 어려울수록 모여 기도하며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1부 예배에서 사회를 맡은 강태광(월드쉐어 USA 대표)목사는 "경제가 어렵다는 하는 것은 언제나 기도제목이었지만 특별히 한인기업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진건호 목사(하톤교회)의 개회기도에 이어 '예레미야서 9장 23-24' 본문 말씀에 '준비된 그릇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부요' 재하의 설교 제목으로 단에 오른 김준식 목사(남가주 샬롬교회)는 "축복을 받으려면 우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한다"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릇을 발견하시면 재물을 쏟아 부으신다. 그러려면 지혜, 용맹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인애, 공평, 정직을 자랑하라는 것이며 정직이라는 단어가 '의'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것을 강조했다.

조선일보 이기욱 대표는 한자성어 '진인사대천명'를 예로 들어 "인간으로서 할 일을 다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이 한자성어처럼 한인사회 경제가 어렵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조찬기도회를 준비했다. 목회자분들이 한인사회 경제부흥을 소망하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민종기 목사의 인도로 ▲청교도 신앙회복을 위해(안현숙 목사) ▲미국 한인사회를 위해(김영일 목사) ▲남가주 한인 상공인을 위해(김재권 장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최학량 목사) 기도했다.

송정명 목사(미주 성시화 운동본부 대표)는 "기도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사업체에 매우 필요하다"면서 "상공인 여러분들도 사업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수종 드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생각으로 이번 기도회를 통해 어려울 때마다 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윤준 기자 ➔ 3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5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이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전기로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신뢰 —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 / 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섣불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a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제106주년 3.1절 연합 기념식 "위대한 여정의 나라"

BTS, 블랙핑크, 오징어게임, 초등학생들까지 흥얼거리는 로제와 부르노 마스가 부른 '아파트', 한인 청소년들에겐 이 K-컬쳐 대중문화들이 낯설지 않을것이다. 그러면, 3.1절은 어떨까?

1910년 조선은 경술국치(한일병합韓日倂合)를 겪으며 국권을 잃고,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 마저 일제에게 박탈당하고 만다. 1919년 3월 1일, 일부 민족지도자들은, 거족적인 독립운동을 계획했다.

일본 제국의 지배에 항거하여 조선의 독립을 외치던 이들의 함성이 탑골공원, 천안 아우내 장터, 평남 강서군 사천장터, 경상남도 창원, 제암리, 전국 곳곳으로 태극기 물결과 함께 들불처럼 퍼져나갔고 이 운동에 동참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로부터 106년이 흐른 오늘, 이 역사를 한인들은 얼마나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을까?



여러 한인 단체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3.1절 노래를 합창했다. ⓒ기독일보

로버트 안 LA한인회장, 김영완 LA 총영사, 캐런 배스 LA시장,시의원 등 참석
형식적인 축사 대신, 독립 운동의 정신에 초점

제106주년 3.1절 연합 기념식이 3월 1일 오전 11시에 남가주새누리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스티브 강 이사장(LA한인회 KAFLA)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한인회가 주관한 "대한이 살았다"라는 제목의 공연과 화랑청소년재단 소속 청소년들이 제작한 기념 영상을 필두로, 클라라 원 이사장(대한인국민회기념재단) 개회사, 흥사단 스카웃 기수단 입장,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경례, 양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을 위한 묵념)가 이어졌다.

이어서 한인 단체 13곳의 대표가 3.1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단체 대표에는 헬렌 김 회장(미주3.1 여성동지회), 엘라 김(화랑청소년재단), 헤더 허트(LA10지구 시의원), 표한규(독립운동가 전명운 선생 후손), 존리(LA12지구 시의원), 예나 리(화랑청소년재단), 안성주(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 후손), 데이빗 곽 회장(미주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김동건(화랑청소년재단), 정문식 지부장(흥사단LA), 알렉시스 리(화랑청소년재단), 그랜트 현(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자문위원), 김준배 회장(광복회미국서남부지회)가 있었다.

독립선언서 낭독에 이어, 김영완 총영사가 대통령대행 기념사를 대독하고, 로버트 안 회장(로스앤젤레스한인회) 환영사, 지미 고메즈(연방하원의원) 축사, 영 앤젤스 합창단의 축하공연 후 3.1절 노래를 모든 참석자들과 함께 부르고 만세삼창을 했다.

주디 한 기자

➔ 1면 칼럼 〈5일 '재의 수요일' …〉에 이어서

성도들은 이 재를 머리에 뿌리거나 이마에 바를 때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재만큼 많고, 지워지지 않고, 가릴 수 없는 수치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였다.

사순절이 개신교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하는 목사, 신학자, 성도들이 있다. 그러나 1년 내내 예수 그리스도 생애 중심의 교회력을 따르는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8주간 주현절기가 끝나고 이어지는 약 7주간 사순절, 그 후 이어지는 7주간 부활절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루카 지오다노(Luca Giordano,1634-1705)의 El Prendimiento de Cristo (The Arrest of Christ).

2. 사순절

1) 의미

사순절(四旬節, Lent)이란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부활절로부터 46일 전)을 말한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신앙 성장과 회개를 통한 영적 훈련의 시기이며,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시기다.

2) 시기

사순절은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부터 시작되는데, 부활절 날짜에 따라 결정되는 이 날은 2월 4일부터 3월 11일 사이에 온다. 2025년 '재의 수요일'은 3월 5일이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로서 재의 수요일이 확정된 것은 주후 6세기 그레고리 1세(Gregory Magnus, 640년) 교황 때부터다.

사순절은 처음 1세기에는 단 40시간만 지켰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40시간 동안 있었던 것과 일치시키기 위해서였다. 이것이 3세기에 이르러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지키다 나중에 30일간으로 연장됐다.

마침내 주후 325년 니케아 공회의(Council of Nicea)에서 처음 '40일'로 정했다. 이에 대한 기록은 주후 330년 아타나시우스의 편지와 주후 348년 예루살렘 시릴(Cyril)의 〈교리문답 강의〉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니케아 공회의 후에도 얼마 동안은 오늘날과 같은 40일간 절기로 지키지 않았다.

동방 교회에서는 600년경부터 7주간 지켰는데,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하고 성지주일을 포함해 36일간으로 정했다. 서방 교회에서는 6주간으로, 주일을 제외하고 26일을 지켰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4세기 때처럼 40일을 지켰으며 8주간 중 5일만 단식했다. 그 후 7세기 무렵 서방 교회가 재의 수요일부터 사순절 첫 주일까지의 4일을 포함하면서 오늘날과 동일한 40일간 지키게 됐다.

3) 행사

사순절 기간 지켰던 대표 행사는 자신의 죄와 그리스도의 대속을 생각하며 금식하는 것이다. 사순절 금식은 매우 엄격하게 지켜졌다.

사순절 식사로는 저녁 전 한 끼 식사만 허용됐으며, 물고기와 고기 등의 육류는 물론 우유와 달걀로 만든 음식까지도 금지됐다. 그러나 8세기 이후 규정이 많이 완화되기 시작해 14세기에는 금식 기도 대신 절식 기도가 진행됐으며, 15세기에는 정오 식사가 일반적 종교 관습이 됐으며, 저녁 시간에도 간단한 식사인 '콜레이션(collation)'이 허용됐다.

그러나 사순절 기간 연극, 무용, 연애 소설 읽기와 같은 오락 행위는 여전히 금지되었으며, 화려한 옷을 입는 것, 좋은 음식을 먹는 것 등 호화 생활 등도 자제됐다. 대신 자선과 예배 참석, 기도 등이 권장됐다.

어떤 곳에서는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 3일 정도 '사육제(carnival)'가 거행됐다. 사육제는 원래 '육이여(carni)', '안녕(vale)'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교 영향을 받은 이 축제 기간 금식하는 사순절과는 대조적으로 술과 고기를 먹었으며, 가장행렬 등 인간의 쾌락 본능을 자극하는 행사들도 행해졌다.

1517년 종교개혁 이후 종교개혁자들은 형식적이며 지나치게 많은 교회의 의식 철차들을 폐지했는데, 이때 사순절에 관계된 많은 의식들도 간소화 내지 폐지됐다. 그러나 회개의 시기로 지켰던 중세 교회의 사상은 받아들여, 공동기도문 중 사순절 기도문 주제를 회개로 삼는 등 계속 사순절을 기념하고 있다.

김창환 목사(서울 강서교회)

김미경의 행복 찾기 토크 콘서트

인생 코칭과 솔루션을 제시하며 '국민 멘토'로 명성을 높인 김미경 강사(MKYU 대표) 가 캘리포니아 LA 지역에서 "더 행복한 나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란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굿네이버스 USA(회장: 이일하)가 주최하는 이번 콘서트는 삶에 지친 이민자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도전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지친 분들, 삶의 리셋이 필요하신 분들께 삶의 방향과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김미경 강사 초청 토크 콘서트가 3월 28일(금), 29일(토) 에브리데이교회, 얼바인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굿네이버스 USA

행사 일정 및 장소
3월 28일(금) 7PM - 9PM 에브리데이교회
3월 29일(토) 4PM - 6PM 얼바인온누리교회
티켓 가격: $20 (수익금은 굿네이버스 USA 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 및 아동을 위한 쉘터를 위해 100% 사용된다.)
전화: 877-499-9898
문자: 949-234-7178
예매처: 핫딜 Hotdeal, 중앙티켓센터 https://bit.ly/4i7tcBe 213-368-2611

박성규 원로목사 추대 신용환 담임목사 취임

할렐루야! 20년간 주님세운교회와 동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까지 주님세운교회의 은혜의 20년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덕분입니다. 3월 16일, 본 교회는 20년간 신실하게 섬기신 1대 박성규 목사님을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신용환 목사님을 2대 담임목사로 취임하는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본 교회가 더욱 성령으로 뜨겁고, 은혜 넘치는 교회로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꼭 참석하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세운교회 1대 담임목사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2대 담임목사
신용환 목사

일시: 2025년 3월 16일 오후 4시
장소: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KPCA JSC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310) 325-4020
Junim Seun Church

“God First!” 신앙의 루틴이 승리를 만든다

나성순복음교회 설립 51주년 기념 및 임직예배





지난 2월 28일(금)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는 교회 설립 51주년 및 임직예배를 거행했다. 장로 배원준, 안수집사 배재근, 최경열, 최선웅, 권사 강연정, 권현아, 김미경, 양수정, 이미선, 전성희, 조성실, 한순영, 명예권사 김연희, 박수지, 백다나, 윤선미가 임직했다. ⓒ나성순복음교회

지난 2월 28일(금)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는 교회 설립 51주년 및 임직감사예배를 거행했다.

이날 임직 예배에서 진유철 목사는 “시작과 끝이 같아야 승리한다”(롬 1:17)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며, 직분자로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설명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세워져야 한다고 선포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었으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자기 인식이 확고했다. 시편 123편 2절을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한다.”

또, 종은 주인을 바라보아야 하며, 주인이 공급해 주시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을 때 승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내 앞에 문제가 생기고 불경기를 만나고 병들 때, 죽음의 순간이 다가와도, 주인을 바라보는 종이 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아지고 커지고 발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어서, 한국의 2대 문교부 장관, 연세대학교의 초대 총장을 역임한 백낙준 교수를 예로 들며 정직과 충성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분은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 있었다. 중학교에 들어갔지만 학교를 계속 다니기 어려울 때 미국 선교사 윤산온(George M. McCune)이 후견인이 되어서 공부를 더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아침에 선교사님이 나가면서 마당을 쓸라고 하고, 저녁 늦게 돌아왔는데 여전히 마당을 쓸고 있었다. 이 소년의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고 미국 유학을 보냈다.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와서 한국 교육을 일으켜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

두 번째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 습관이 중요하며, 이 영적 습관들이 모여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물로 빚어진다고 조언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육체는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다. 과거의 죄를 바라보게 만들고, 넘어뜨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마귀가 있다. 거대한 세상의 문화, 풍조, 물질의 유혹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삶이 무뎌지게 만든다.”

“영적인 루틴이 만들어진 사람이 큰일을 하게 돼 있다. 저도 참 많은 설교를 하고, 많은 일을 하는데 매일 매일 작은 루틴들이 지켜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큰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늘 경험한다. 사람 앞에 잠깐 보이는 반짝하는 것은 마치 성냥불이 켜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절대로 큰불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러나 작은 영적인 루틴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지켜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통해 큰일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지치지 아니하고 번아웃되지 않는다.”

진유철 목사는 그 영적인 루틴의 핵심은 “God First”이라며, 모든 일에, ‘하나님이 먼저’가 되도록 훈련할 때, 승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영적인 루틴이 형성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능력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강한 자가 된다. God First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것을 빼앗고, 우리를 귀찮게 하고, 속박하는 것이 아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다.”

그는 예수님조차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셨던 사실을 언급하며, “직분자들은 영적인 루틴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며 “단 한 사람에게라도 힘을 주고 희망을 주며, 본을 보여줘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덧붙였다.

설교를 마치며, 진 목사는 개개인의 직분을 넘어 나성순복음교회의 사명에 대해 선포했다.

“저희 교회는 장자 교회이다. 전 세계 선교지의 순복음교회의 장자 교회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좋은 루틴의 본을 작은 교회, 연약한 교회, 또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설교 이후 이선자 목사(서남부 지방회장)와 진유철 목사의 집례 하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이 거행됐다.

주디 한 기자

“한인 경제 거센 도전 직면 … 희망 통해 극복”

➔ 1면 기사 〈LA 한인사회 경제 부흥…〉에 이어서

이어 연단에 박형만 이사장(만희복지재단)은 “미국 이민 59년째인데 목회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면서 “미국과 대한민국 모두 영적 준비를 위한 절박함이 있다”고 말했다.

황선철 회장(CBMC)역시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CBMC 사역을 하면서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한 바 있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며 힘을 얻자”고 말했다. 예배는 한기형 목사(미주 CBS TV 대표)의 축도로 마무리 되었다.

2부 순서로 서사라 목사(주님의사랑교회)의 식사기도 후 오찬을 나누면서 좌담을 이어갔다.

사회를 맡은 LA 한인상공회의소 최명진 이사장은 “요즘 대두되는 것은 관세와 불법체류 등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일 것이다. 불확실성이 많아질수록 한인사회는 경제난관과 여러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기에 발전에 도움이 될 몇분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LA상공회의소 정동완 회장은 “관세문제 등 한인타운이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상공회의소는 이를 예의 주시하며 정보를 제공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오늘 목사님들이 많은 희망을 주셨다. 항상 희망이 있다고 가정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말했다.

좌담에서는 코웨이 천무준 법인장이 “2월부터 영업활동이 위축된 경향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힘을 내야 한다”고 격려했으며 써니 박 변호사(전 부에나파크 시장)는 “정부와 일하면서 여러 협업들이 있을 수 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만OC상공회의소 회장이 “관세 문제에 대해 우리가 심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어진흥재단 모니카 류 이사장은 “이분들의 기도가 모두 응답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 CM 홀딩스 이주형 대표가 “미국은 A.I의 성지다. A.I를 잘 활용하여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와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다룬 ‘분노의 강’ 상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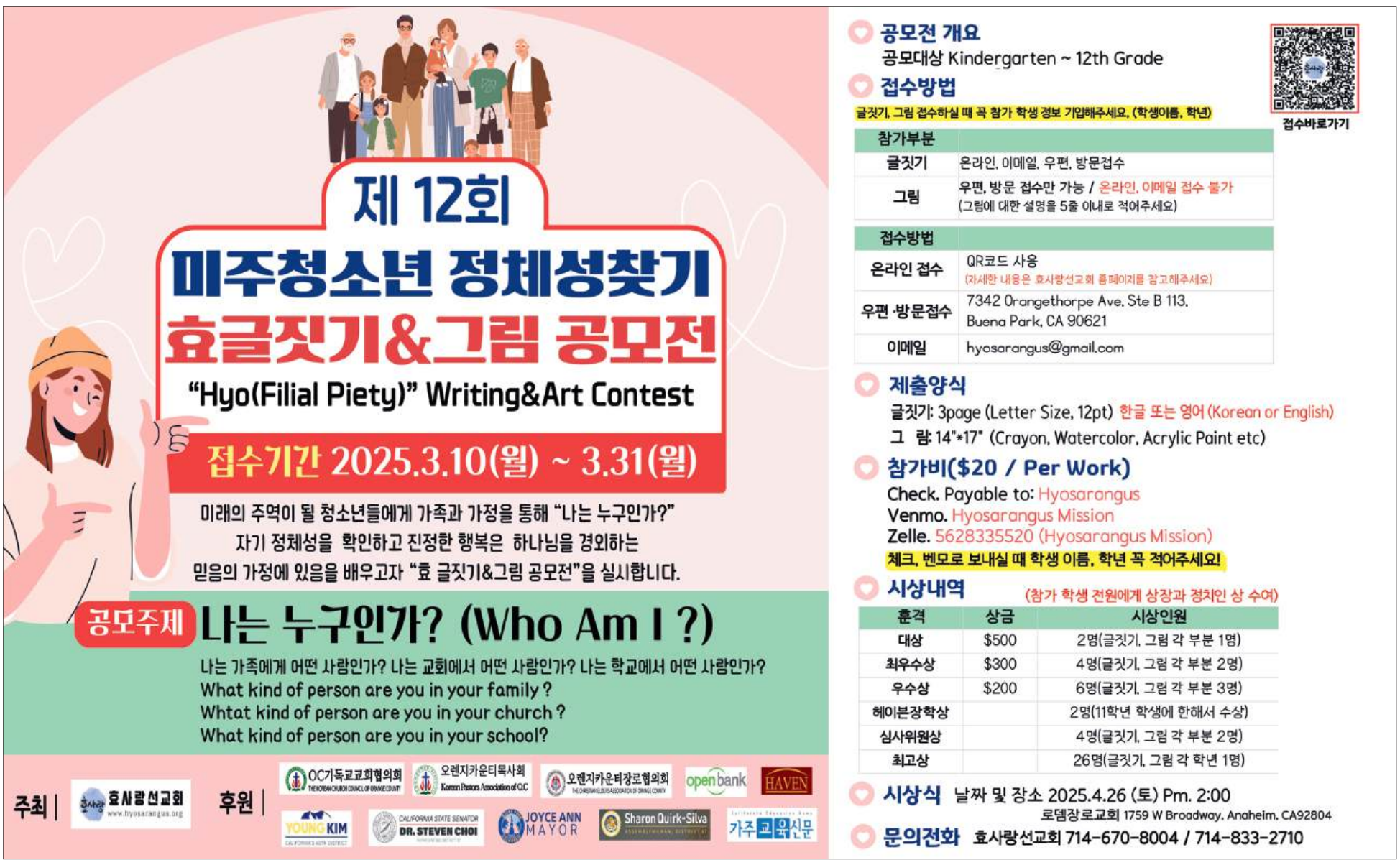
라크라센타에 있는 어노인팅교회(담임 신경섭 목사)는 3월 15일(토) 오전 11시 북한 인권 실태를 다룬 영화 《분노의 강》(감독 윤철형)을 상영한다. 자유가 있는 삶을 꿈꾸는 가정이 겪게 되는 고난을 그린 드라마로, 2024년 한국에서 개봉되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번 영화 상영을 준비한 어노인팅 교회 신경섭 목사는 “남과 북 또 남한 내에서 체제 갈등을 겪는 가운데 자유의 고마움을 일깨우기 위해 준비했다. 어른들로부터 젊은 세대들에게 이르기까지 많은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이다. 이번 영화 상영을 무료로 지원해주신 국제문화 예수선교회 Heaven Maranatha에 감사드린다”라고 초대의 말을 전했다.



영화 《분노의 강》 포스터. ⓒ분노의 강

어노인팅 교회 주소: 2902 Montrose Ave., La Crescenta, CA
문의: 신경섭 목사 (224.622.9183)



이단 대책 세미나, 이단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남가주 평신도를 위한 이단 세미나가 미주복음방송, 미주바이블백신센터, 남가주동신교회, 나성영락교회 공동 주최로 26일(수) 오전 10시에 나성영락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첫번째 강사로 나선 에스라 김 목사(미주바이블백신 센터장)는 미주 내 이단 활동에 대한 현황을 나누면서, 신천지가 주로 포교를 위해서 지역 행사를 주최하며 단체를 홍보하고 있다고 했다.

김 목사는 "신천지는 데이트 앱 등 온라인을 통해 사람들과 온오프라인에서 친분을 쌓고 그룹 바이블스터디를 이끌고 있다. 그렇게 미주 2세들에게 접근하고 그들을 포교하고 있다"고 주의를 요청했다.





신현욱 목사(예장합동 이단 상담소장, 왼쪽)와 에스라 김 목사(미주바이블백신 센터장, 오른쪽). ©기독일보

예장합동 이단 상담소장인 신현욱 목사는 '미주 내 이단 단체 현황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신 목사는 자신이 20년간 신천지에서 몸담고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을 성도들에게 나눴다. 그는 "이단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사람들이 이단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라며, 이단이 어떻게 교회를 미혹하고 신도들을 유혹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단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대상은 이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이다. 이단에 대해 잘 알면 주의할 수 있지만, 잘 모르면 경계심을 가지지 않게 되어 쉽게 빠질 수 있다. 이단들은 우리의 잘 모르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신 목사는 신천지의 포교 전략에 대해 "신천지식 포교 방법은 매우 독특하고 효과적이다. 그들의 주요 특징으로 거짓말과 연기를 잘 한다"며 "신천지 사람들은 처음에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인간관계를 쌓은 뒤에 성경 공부를 제안한다. 그들은 전도 중에 거짓말을 잘하고, 감동적인 간증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들의 목적은 성경공부를 의심하지 않도록 만든다.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혹시 이 사람이 신천지가 아닌가라고 속으로 경계심을 가지면 미혹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천지가 "사기를 치는 종교 집단이다.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은 결국 영적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천지가 미주 지역에서도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2019년과 코로나 기간 동안 신천지는 국내에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배 성장했고, 그 이후로 해외로 눈을 돌려 교세를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주 지역에서는 특히 2세대들이 신천지에 쉽게 빠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미주 지역의 신천지 신도들 중 90-95%가 2세대들인데, 교회에서 철저히 경계하고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목사는 "2세대들은 신천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부모들도 자녀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것을 상상하지 못한다"며,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이단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은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는 것이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대체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방심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게 된다"며 "이단에 대해 잘 알고 경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다. 성도들이 이단에 대해 무관심하게 지내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 엘에이에 세계 이단의 본부 성격의 비중을 둔 단체들이 많이 모여있다. 이만희 교주가 엘에이에 60억을 지원해 예배당을 현금으로 매수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긴 곳이 엘에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에 가장 큰 피해를 끼치는 이단은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신천지'라며 "이단에 주의하고 경계하고 기본 정보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도 네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들이 '안식일', '유월절', '성탄절', '어머니 하나님' 등의 단어로 접근해 오면 절대 이들을 상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신 목사는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하며, 교회와 목회자에게 소속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겸손하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며, 성경공부를 몰래 하지 말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 목회자에게 물어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도들이 교회와 목회자에게 신뢰를 가지고,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 이단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토마스 맹 기자

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 아프리카 전역에 500개 우물 파준다

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대표 서사라 목사)에서 아프리카 지역에 우물 파주기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중앙 아프리카에 우물(Bore Hole) 3개, 나이지리아에는 16개를 파왔다.

지난 해, 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 서사라 대표와 임원들이 중앙 아프리카 수도 방기(Bangui)를 방문해 지역 정통 보수 교단과 오순절 교단 현지 목회자들과 리더들 약 500여명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절대적인 가난 가운데 생존에 기본적인 깨끗한 물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에 놓인 것을 목격하고, 아프리카 전 지역에 500개의 우물을 파기로 결단하고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세미나 이후 임원진들은 인근 지역 10군데를 둘러보고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지역을 3군데 선정해 약 60 미터 깊이의 우물을 계획했다. 이어 나이지리아로 향해 그곳에서 목회자와 리더들을 위한 세미나를 인도한 후에, 같은 상황에 놓인 나이지리아 사람들을 위해 역시 우물을 파주기로 계획하고 돌아왔다.

"방문했던 방기 지역은 중앙 아프리카의 수도임에도 이전 대한민국의 1950-60년대 시골보다 못한 열악한 환경에 있었다. 당시 비가 와서 황토물이 강에 넘쳐 흐르는데, 수도 시설이 없는 이 지역 사람들은 이 물을 떠나 황토를 가라앉혀 먹고 있었다. 이 지역 평균 수명이 55세로 짧은 것은 매일 마시는 물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심지어 기생충 알들이 물에 섞여 있어 뇌로 올라와 병에 걸리기도 한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밝힌 서사라 목사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들어 "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장 작은 자들에게 우물 파주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그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에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지하 60m 깊이 우물을 파주었다. ⓒ 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

한 우물을 파는데 한화로 약 1300만원이 들지만, 60미터 깊이로 판 우물에서 맑은 물이 터져 나오면 한 우물에서 약 1만 명이 평생 식수를 먹을 수 있다. 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는 Jesus Well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 물을 마시는 이들마다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로 인도하게 될 것을 기도하고 있다.

우물 파주기 사역에 대한 문의는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으로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효,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 혜 영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치과 Up to $4,000~ Everyday Allowence(마켓, 유틸리티, OTC등)
안경, 보청기 Flex Card, Silver Sneaker + Extra Exercise 등등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
메디케어 &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신 분!
새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
지방에서 이사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와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시니어 건강칼럼 - 근육관절통증



계단만 올라가도, 병뚜껑만 따도 찌릿한 관절

"관절 통증. 그냥 이렇게 참아야하나?"

일상을 괴롭히는 지긋지긋한 관절 통증

"손주를 안아줄 때마다 무릎이 비명을 지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관절의 통증이 심해서 엘리베이터를 찾게 됩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퇴행성 관절염을 비롯하여 인대 손상, 만성 근골격계, 연골손상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넘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방문해도 시원한 방법 없이 생활에서 실천할 운동을 권유하거나 스테로이드 주사를 시술을 하곤 합니다. 답답한 관절 통증 치료. 다른 방도는 없을지 시니어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PRP 주사란?

현대 의학이 발전하면서 인체의 자연 치유 능력을 활용하는 치료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PRP(Platelet-Rich Plasma) 라고 부르는 주사입니다. PRP 주사는 환자의 혈액에서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을 추출해 손상된 조직에 주입함으로써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회복을 돕는 치료법으로 관절 통증을 비롯해 여러 방면의 치료에 각광받고 있습니다.

PRP 치료는 처음에 스포츠 의학과 탈모치료 같은 미용 분야로 개발되었다가,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 통증 치료에도 큰 효과적임을 나타내면서 퇴행성 관절염 치료, 통증 완화 및 관절 기능 개선에 쓰이고 있습니다.

시니어에게 PRP를 추천하는 이유

나이가 들면 관절과 연골이 약해지고, 근육과 인대가 손상되기 쉬워집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무릎 관절염이나 만성 근육통으로 고통받지만, 약물이나 기존 치료법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PRP 주사는 스테로이드 주사와 달리 부작용 없이 근본적인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치료법으로, 시니어들에게 특히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와는 무엇이 다른가

스테로이드 주사는 일시적인 통증 완화가 뛰어나 시니어들이 근육 혹은 관절쪽에 통증이 있을 때 시술을 받게 되나 스테로이드를 장기적으로 복용, 시술을 하게 되면 조직을 손상 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연골을 약화시키고 면역등의 억제 효과로 감염의 위험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부작용과 더불어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는다는 점도 있습니다.

왜 망설이는가?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한 상식은 잘 알려져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니어들이 PRP 시술을 받는 것에 망설이는 데에는 재정 부담이 가장 큽니다. 스테로이드 시술은 평균적으로 연 1회 ~2회로 몇 백불에 그치지만, PRP는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함으로 비교적 짧은 주기로 천불 단위대의 시술을 해야합니다.

PRP 시술은 자신의 혈액을 이용하여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치료로,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시니어들이 이렇게 큰 금액을 치료 목적으로 선뜻 지불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PRP 비용과 커버리지

그렇다면 건강 보험사에서는 PRP 시술에 대한 커버가 어떨지 살펴보면 불행히도 대부분의 건강 보험사에서는 PRP 시술 비용을 완벽히 보장해 주지 않고 있거나 아주 극 일부만 커버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니어들이 통증을 위해 PRP 시술을 받고 싶어도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니어를 위해 PRP 시술을 100% 커버하는 클리닉

좋은 소식은, 이러한 재정적 부담을 인지하고 시니어들에게 PRP 시술을 100% 커버해주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니어를 위한 센터메디컬그룹은 각 직영 클리닉의 환자들에게는 PRP 시술을 비롯, 통증 관련 시술들에 대해서 100% 커버해주고 있습니 다.

이 뜻은 환자들이 직영점 클리닉의 닥터를 주치의로 삼으면 통증 시술에 있어 부담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클리닉 정보는 아래에)

센터메디컬클리닉-가든그로브점 (임유일주치의)
12372 Garden Grove Blvd., #B, Garden Grove, CA 92843 (714. 583. 3569)

센터메디컬클리닉-로렌하이츠점(송홍우주치의)
19115 Colima Rd., #105, Rowland Heights, CA 91748 (626. 363. 4661)

센터메디컬그룹

아이들 진심 사랑하는 교사라면, 부모님과도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학부모와의 관계를 쌓는 것이다. 학부모는 청소년 사역의 최고 동역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 학기 초마다 학부모에게 연락을 돌리며 인사를 하고, 이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신경쓰는 이유는 분명하다. 부모와 유대가 깊어질수록 아이들의 영적 상태와 생활 습관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협력해서 사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청소년 사역자가 학부모와의 소통을 부담스러워한다. 심지어 일 년 내내 단 한 번도 학부모에게 연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역을 하면서, 이 차이를 보고 깨달은 것이 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사는 부모에게도 관심을 기울이며, 함께 기도하며 아이를 돌본다. 부모와의 소통이 원활할수록, 아이의 신앙생활과 전반적인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 부모는 담당 교사의 연락을 기다린다. 자신의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를 반기지 않을 부모가 없을 리 없다. 오히려 대부분의 부모는 교사의 연락을 받고 안도하며, 교회와의 연결을 더욱 소중히 여긴다.

학부모와 연계 사역 중요한 이유

예전에 교회를 잘 나오던 고1 여학생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2주 동안 보이지 않았다. 첫 주에 여학생이 나오지 않았을 때 연락을 했더니, 늦잠을 잤다며 다음부터 일찍 교회에 가겠다고 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도 예배에 나오지 않았다.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여학생의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다. 알고 보니 여학생은 교육관 바로 앞까지 왔다가, 어머니와 인사한 후 동생과 함께 놀러 가버렸던 것이다.

만약 학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머니께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셨을 것이고, 아이는 계속 예배를 빠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부모님과 소통했기 때문에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었고, 이후 여학생은 다시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부모님과의 협력은 단순히 연락 그 이상으로 아이들의 신앙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다른 사례로, 중2 남학생이 있었다. 평소 예배에 잘 참석하던 아이였는데, 갑자기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설교 시간에 졸거나 집중하지 못했고, 소그룹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교사는 학부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아이의 상황을 공유했고, 부모님 역시 집에서 아이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점차 교회 생활에 다시 흥미를 보였고, 부모와 교사의 관심 속에서 신앙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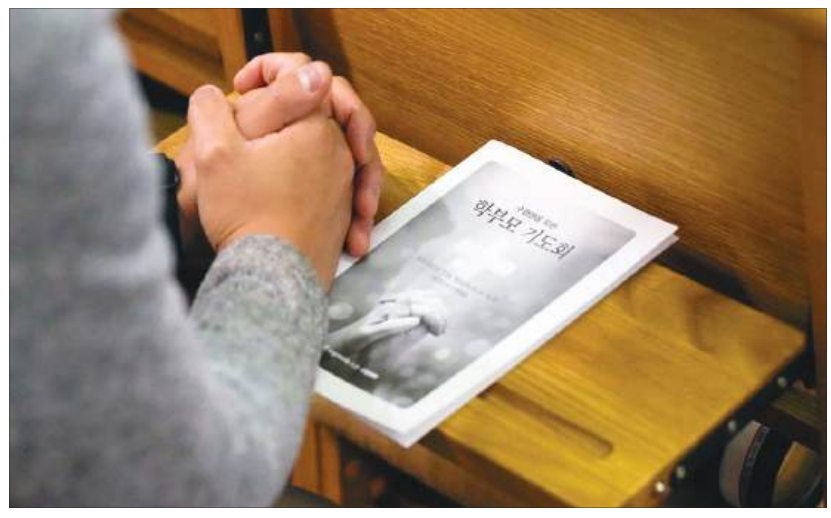
첫 시작, 아이 기도제목 묻기부터!

많은 교사가 학부모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한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의 기도제목을 묻는 것이다.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소개하고, 아이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지 물어보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질 때 부모도 열린 마음으로 응답하게 된다.

교사가 아이의 영적 성장과 신앙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다고 하면, 부모는 큰 신뢰를 느낀다. 특히 아이의 신앙적 고민이나 가정에서의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더욱 깊은 관계가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아이의 상황을 보다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사역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다.

꾸준한 소통이 중요하다

부모와의 관계는 한 번의 연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매주는 어렵더라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연락하며 아이의 기도제목을 공유하고, 청소년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도 전하면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된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해하며, 교회와 교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소식을 듣길 원한다.



기도하는 학부모 모습.

이때 단순한 안부 연락이 아닌, 아이의 신앙적 성장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최근 아이가 말씀을 듣고 깊이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집에서도 이에 대해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아이에게 기도 생활을 습관처럼 하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와 같은 구체적인 메시지가 효과적이다.

학부모 간담회, 어렵지 않다

1년에 두 번 정도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보자. 부모들을 초청해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청소년기 특징과 신앙적 양육 방법을 함께 고민하면, 부모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된다. 특히,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부모는 교사를 더욱 신뢰하게 되고, 청소년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간담회에서는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에 갖는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교회와 부모가 동일한 방향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부모들은 종종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라며 고민을 나누는데, 이럴 때 교사는 신앙 교육의 중요성과 실질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부모는 아이들의 신앙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학부모와 협력할 때, 청소년 사역은 더욱 탄탄해진다. 학부모와의 소통을 어려워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먼저 연락을 시도해 보자!

홍은혜 기자

독일 · 오스트리아 · 스위스 복음주의 단체들, '이슬람 위한 30일 기도'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의 복음주의 연합단체들이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이슬람 세계를 위한 30일 기도주간을 가진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독일복음연맹(이하 EAD)의 프랭크 하인리히(Frank Heinrich) 공동대표는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고 권고했다. 문자 그대로 항상 기도하는 것이 비현실적일 수 있으나,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회원들의 동참을 격려했다. 구세군 출신으로 유럽아랍어권복음연맹(Evangelical Alliance of Arabic Speakers in Europe, EAAS) 이사회 구성원으로 활동 중인 하인리히 목사는 "우리가 모든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 은둔하며 하루종일 기도해도 세상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며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특별한 개인적인 부르심일 것"이라고 했다. 하인리히 목사는 "모든 신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수록, 우리가 이 생명의 연합을 위해 창조돼졌다는 사실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권세를 알게 됐다"고 했다.하인리히는 지난해 여름 이라크에서 열린 과학 컨퍼런스를 회고하며 "매년 2천만 명의 무슬림이 참석하는 컨퍼런스 무대에 올라 무슬림 고위 인사들 앞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고, 이 신앙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증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다. 이를 통해 무슬림을 위한 기도법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었다. 동시에 이미 느끼고 있던 것들에 대한 확신도 얻었다. 무슬림 세계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 기도의 동기는 이웃 사랑이며, 그 사랑은 눈높이에서만 일어난다"고 했다. 이어 "이는 무슬림과의 개인적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관계를 잘 맺으면) 멀리서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무슬림이 친구의 자발적인 방문을 좋아하며, 정직하고 신실한 삶의 태도를 중시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무슬림이 다수인 나라의 기독교인들은 편안한 서구에서와 달리 압박 속에서 기도하며, 그들의 믿음을 강력하게 경험한다"고 했다.



ⓒ 독일복음연맹

하인리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곤경에 처한 형제·자매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며, 무슬림들 사이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평화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대웅 기자





서울메디칼그룹이
No.1 인 이유는
늘 따듯한 마음으로 가족을 지켜온
오늘의 당신 덕분입니다

더 많은 사랑으로
더 건강한 시간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교회 내 X세대 10명 중 7명, 영적으로 갈급

X세대 담임목사 3명 중 1명은 '번아웃'

교회 내 X세대(1970년대 생, 46~55세) 10명 중 7명은 현재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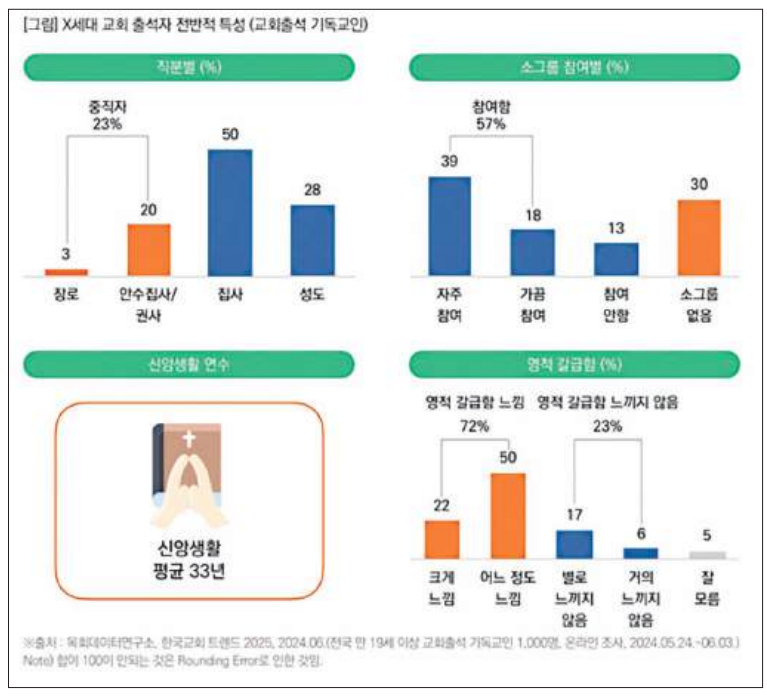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는 4일 'X세대의 삶과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여러 통계 자료들을 소개하면서, 지난해 전국 만 19세 이상 교회출석 기독교인 1천 명을 대상으로 했던 조사 결과도 함께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X세대 교회 출석자의 '평균 신앙생활 연수'는 33년으로 조사됐고, 비교적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10명 중 7명(72%)에 달했다.

X세대 교회출석자들의 직분은 집사가 절반(50%)으로 가장 많았고, 성도 28%, 장로 등 중직자 23%로 나타났다. 소그룹에는 57%가 참여하고 있었으나, 소그룹이 없거나(30%) 참여 안 하는 비율(13%)도 43%였다. X세대 담임목사들이 시무하는 교회의 절반 이상(54%)이 49명 이하의 소형교회였고, 현 교회 시무기간은 평균 7년으로 나타났다. 또 X세대 담임목사 3명 중 1명(33%)은 현재 자신이 '번아웃 상태에 있는 것 같다'고 응답했다.

특히 교회 규모가 '500명 이상'(42%)인 중대형 교회 목회자의 경우 번아웃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주목된다고 목데연은 덧붙였다.

이 밖에 부교역자 구인난에 대한 대안으로 평신도의 교역자 역할에 대해 X세대 목회자 4명 중 3명(74%)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데연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16%를 차지하며, 사회와 교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X세대는 전 세대 중 가족에 대한 애착이 가장 높고(가족이 중요함 57%),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하는 비율이 43%에 달하며, 직장에서는 세대 간 세대 차이를 가장 많이 느끼는 집단(87%)"이라고 했다.

특히 "X세대의 10명 중 7명이 영적 갈급함을 느낀다는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가족과 경제활동에 치중하다 보니 자신의 신앙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부족한 것이다. 이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X세대 영성 수련회, 성경·기독교 서적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회 내 스터디 그룹 구성 등을 제안한다"고 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김진영 기자

미국 기독교인 수, 감소 멈추고 안정세

퓨리서치, 성인 36,908명 대상 설문

미국의 기독교가 쇠퇴를 멈추고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라이프웨이연구소(Lifeway Research)는 최근 퓨리서치가 미국 성인 36,9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교현황연구(이하 RLS)를 바탕으로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미국인의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기독교인 비율은 2019년 이후 60%에서 64% 사이로 유지돼 왔으며, 현재는 62%를 기록 중이다. 무종교인들의 비율은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프웨이의 아론 얼스(Aaron Earls) 연구원은 "미국 종교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 따르면, 기독교의 쇠퇴는 1990년대 후반 시작돼 2000년대에 가속화됐다"며 "퓨리서치를 포함한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소세가 완전히 멈췄다고 할 수 없으나 적어도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이후 기독교 인구는 60%에서 64% 사이를 맴돌았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의 안정세는 이전의 두 종교 현황 연구에서 분명히 드러난 수년간의 하락 이후에 나타났다. 2007년 RLS에 따르면, 미국인 4명 중 3명 이상(78%)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혔다. 이 수치는 2014년에는 71%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62%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얼스에 따르면, '종교적으로 무소속이거나 종교가 없는' 인구에 대한 연구는 무종교인 수의 증가가 수년간의 꾸준히 계속된 끝에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 준다. 그는 "미국인 10명 중 3명(29%)이 자신을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종교가 없음'이라고 답했다"며 "RLS는 무종교자의 증가세가 끝났음을 시사하는 다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 준다. 이 새로운 추세는 교회가 주변인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인구 중 개신교인은 2007년 51%에서 최근 40%로, 가톨릭교인은 2007년 24%에서 최근 19%로 감소했다. 개신교인의 경우 2019년에, 가톨릭교인의 경우 2014년에 감소가 멈췄다.

그러나 얼스는 개신교 내부에서도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고 봤다. 그는 "복음주의 개신교인의 비율은 2007년 26%에서 최근 23%로, 마찬가지로 흑인 개신교인은 7%에서 5%로, 주류 개신교인은 18%에서 11%로 감소했다"며 "이는 전반적인 기독교의 감소가 주류 개신교인의 감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영 기자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촉구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촉구했다고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제이디 밴스 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긴장된 회담이 열린 후 나온 발언이다.

그레이엄 목사는 지난 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회담이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안타깝게도 좋은 결과로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기대했던 진전이 다시 지연되었다"며 "우크라이나 국민과 전쟁의 종식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덧붙였다.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Billy Graham Evangelistic Association)와 기독교 구호 단체 사마리탄스 퍼스의 CEO인 그레이엄 목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3년간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펼쳐왔다. CP는 지난주 백악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해결 노선을 비판하며 긴장감이 고조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이며, 당신은 지금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며, 당신의 나라는 현재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도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감사 인사를 한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하며 미국의 지원에 대한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감사를 표했다고 답했으나, 밴스는 젤렌스키가 지난 10월 펜실베이니아에서 미국 민주당을 위한 선거 유세를 한 점을 지적했다. 회담은 결국 트럼프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내보내면서 종료됐다. 이에 따라 원래 계획되었던 공동 기자회견과 미국-우크라이나 희귀 광물 협약 체결도 무산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회담 후 성명을 통해 "젤렌스키는 미국의 개입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유리한 협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평화를 원한다"며 "젤렌스키가 평화에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최승연 기자



EU 주교들 "시리아 기독교 곤경 심각… 단호한 조치 필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리아 기독교인들. ⓒ크리스천 미디어 센터 유튜브 영상

유럽연합(이하 EU) 주교들이 시리아 국민, 특히 기독교 공동체의 곤경을 깊이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유럽연합주교위원회(이하 COMECE)의 마리아노 크로시아타 몬시뇰은 최근 성명을 통해 "EU와 국제사회는 시리아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평화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크로시아타 주교는 시리아의 정치적 혼란이 기독교 공동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시리아 국민은 종교적·민족적 배경과 관계없이 이주, 빈곤, 집·생계·공동체 파괴 등 상상할 수 없는 고난에 직면해 왔다"고 했다.

이어 "특히 수 세기 동안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서 필수적인 부분이었으며 현재는 고국에서 역사적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시리아 기독교 공동체의 곤경에 주목하고 싶다"며 "기독교 공동체의 침식은 시리아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세계의 안정에도 비극적인 손실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COMECE는 EU와 국제사회에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소수종교인들을 포함한 기독교 공동체와 다른 위험 집단의 취약성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시리아는 10년 이상 인도주의적 재앙에 휩싸여 있다. 2011년 '아랍의 봄'의 일환으로 시작된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시위는 빠르게 잔혹한 내전으로 확대됐고, 종파 간 분열, 외국의 개입, 이슬람국가(IS)와 같은 극단주의 집단의 부상으로 인한 갈등으로 국가는 폐허가 됐다.

시리아는 수십만 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이 집을 떠나면서, 현재 현대 역사상 최악의 난민 위기에 직면해 있다.

COMECE는 경제 회복 지원, 평등한 시민권 육성, 대화 촉진이 포함된 즉각적인 인도적 지원과 평화 구축, 재건, 화해를 위한 장기적 전략 등을 촉구했다. 또 EU와 회원국에 시리아 난민이 안전하고 자발적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크로시아타 주교는 "EU 주교로서 우리는 시리아의 형제자매들, 특히 엄청난 역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기독교 공동체와 연대한다"며 "우리는 선의의 모든 사람들에게 '시리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모든 시리아인이 자유, 안보, 희망 속에서 살 수 있는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성명을 마무리했다.

강혜진 기자

탈레반, 영국인 부부 포함 외국인 4명 구금



탈레반에 체포된 레이놀즈 부부 ⓒBBC 영상 캡처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탈레반 당국이 영국인 부부와 중국계 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4명을 구금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체포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탈레반 측은 "특정 고려사항(CERTAIN CONSIDERATIONS)"이 있다고만 언급하며 구체적인 설명을 피하고 있다.

영국 BBC와 AFP통신에 따르면, 영국 국적의 피터 레이놀즈(79)와 아내 바비(75)는 지난 1일 아프가니스탄 바미얀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 탈레반에 의해 체포됐다. 이들은 18년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젝트를 운영해 왔다. 해당 프로젝트는 탈레반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성의 노동과 12세 이상 소녀들의 교육을 금지한 탈레반의 정책과 충돌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탈레반 내무부 대변인 압둘 마틴 카니는 "아프가니스탄 신분증을 소지한 영국인 2명과 중국 및 미국 국적을 가진 1명, 그리고 그들의 통역사 1명을 구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의 신원 확인과 체포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만 덧붙였다.

레이놀즈 부부는 체포 직후 자녀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나, 사흘 후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2주가 넘도록 가족들은 부모의 소식을 듣지 못한 상태다. 부부의 자녀들은 탈레반에 석방을 호소하며 "부모님이 체포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헌신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몸값 협상에 응하거나 인질로 거래되느니 차라리 목숨을 희생하겠다고 말했다"며 부모의 의사를 전했다.

영국 외무부는 영국 국적자 2명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구금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탈레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다, 수도 카불에 대사관을 두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외교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탈레반은 2022년 여성의 NGO 활동을 금지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여성을 고용하는 모든 NGO의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여성의 교육과 노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번 체포가 이러한 정책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탈레반은 2021년 8월 미군 철수 이후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으나, 국제사회는 이를 공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탈레반의 외국인 억류 조치는 국제사회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향후 외교적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은혜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차세대예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새벽예배 (월)온라인 Only 오전 6시
(화~토) - 오전 6: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청소년예배 오전 10:5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토요비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본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1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MC 중고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본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오전11시
새벽기도회 오전 6시(금, 토)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E.M(대,침)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일 오전 10:00 하톤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진건호 담임목사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EWS 예배 오후 2:00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11:00
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전 9:3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GRC(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2부예배 9:30am
주일3부예배 11:15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일EM예배 11:00am
수요찬양집회 7:30p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r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밸가든구국재단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 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15
한어부 오후 1: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20
2부예배 오전 09:10
3부예배 오후 11:2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주일예배 3부 오전11:30
(청장년/교육부서)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9:4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우영화 담임목사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것의 중요성



쉐리 워드 CEO ⓒlinkedin.com/in/sherrylynward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쉐리 워드 CEO의 기고글인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의 위험성'(The danger of working FOR God and not WITH Him)을 1일(현지시각) 게재했다.

쉐리 워드 CEO는 Square Tree Publishing & Productions의 CEO겸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나는 1985년 남부 캘리포니아의 록웰 인터내셔널(Rockwell International)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우주 왕복선 챌린저(Challenger)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우리의 책상은 국제우주정거장(ISS)만큼 거대한 격납고 안에 있었고, 가슴 높이의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어 주변 사람들을 모두 볼 수 있었다.

1980년대 중반, NASA는 우주여행의 의미를 되살리고자 사회과 교사인 뉴햄프셔 출신의 크리스타 매콜리프(Christa McAuliffe)를 최초의 민간인 승무원으로 선정했다. 그녀는 우주에서 "궁극의 현장 학습"(The Ultimate Field Trip)과 "우리가 걸어온 길, 우리가 나아갈 길"(Where We've Been, Where We're Going)이라는 두 개의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1986년 1월 28일, 회사는 대형 TV 화면을 설치해 우리가 챌린저의 발사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수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발사 순간, 동료들과 환호하며 하이파이브를 나눴다. 그러나 73초 후, 챌린저는 폭발했다. 그날의 충격은 내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 있다. 마치 2001년 9·11 테러 당시 느꼈던 감정과 비슷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직접 참여한 일이었다. 이후 조사 결과, 추운 날씨로 인해 고무 O-링이 손상된 것이 원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나의 작은 부품, 유난히 추운 밤, 시기를 놓친 발사,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하나의 우주 왕복선을 파괴했고 승무원 전원의 목숨을 앗아갔다. 만약 기온이 더 높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챌린저는 잘못된 타이밍에 발사된 것이었다.

너무 이른 '발사' 는 위험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빨리 움직이면 영적으로도 큰 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 세상은 성과, 생산성, 지표에 집착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work FOR God)을 우선시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partner WITH God)을 놓치고 있다.

마치 현대판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우리는 더 많은 교인, 더 많은 재정, 더 많은 소셜 미디어 팔로워를 원한다. 하지만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가"로 변질되기 쉽다. 한 번은 내가 진행하는 스퀘어 트리 퍼블리싱(Square Tree Publishing) 행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사람을 발사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 그들의 책, 제품, 서비스보다."

그 말씀을 듣고 나는 멈춰 섰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 프로젝트를 맡은 "사람"이었다. 더 큰 플랫폼, 더 높은 판매 실적은 중요하지 않다. 만약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모든 성공은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영적 '발사' 를 준비하는 법

챌린저 사고를 통해 NASA가 O-링 문제를 간과한 것처럼, 우리도 내면의 문제를 무시한 채 너무 빨리 '발사'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올바르게 준비해야 할까? 내면의 치유(Inner healing): 하나님께서 다루고자 하시는 영역이 있다면, 기꺼이 그분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 전문가, 상담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프로젝트를 빨리 시작하고 싶다는 이유로 이 단계를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 겸손 유지(Stay low):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성공이 찾아와도 그 영광을 스스로 차지하지 말라. 배움을 지속하기 (Always learning):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세우기 (Bring others): 나만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위에 서도록 도와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된 질서다. 다른 사람을 높이면, 모두 함께 올라갈 수 있다. 멘토링, 협력, 나눔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

최승연 기자

YWAM, 창립자 별세와 여러 비극 속 '기도' 강조

국제 예수전도단(이하 YWAM)은 2023년 창립자 로렌 커닝햄 목사의 별세와 2024년 탄자니아에서의 교통사고 이후, 지지자들에게 다시 기도에 헌신할 것을 촉구했다.

YWAM은 최근 웹사이트에 공개한 월례 기도회 초청 글에서 "우리의 초기 개척은 세계지도를 놓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주셔서 열방으로 인도하셨다"며 "기도는 사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핵심가치"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120개국 4,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YWAM Together 2024' 컨퍼런스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기도에 다시 전념하자"는 것이었다. YWAM은 지지자들에게 그 메시지를 상기시키며 기도에 대한 재헌신을 강조했다.

YWAM은 "우리는 2023년 창립자 로렌 커닝햄 목사의 별세 이후 몇몇 끔찍한 비극을 겪었고, 소중한 가족, 친구, 지도자를 잃었다. 우리의 마음은 약하다. 도전과 압박이 커지면서 진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은 우리 사명에 대한 기도의 날개를 펼칠 때다. 모든 YWAM 참여자가 기도 생활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YWAM의 기도 사역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전 세계의 YWAM 가족이 '전례 없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각 나라 안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도록 싸워 달라"고 덧붙였다.

YWAM의 공동 창립자이자 로렌 커닝햄 목사의 아내인 달린 커닝햄(Darlene Cunningham) 사모는 "기도는 YWAM의 본질"이라고 했다.

해당 글에는 YWAM에 깊은 영향을 미친 성경 교사 조이 도우슨(Joy Dawson)의 말도 인용됐다. 2022년 7월 21일 96세로 별세한 도우슨은 임종 전 "비전이 없다면 주님을 찾고 계시를 구하라. 어떤 식으로든 나라를 위한 중보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나라를 위한 중보가 부족하다. 특히 영적 지도자들의 삶에서 기도가 부흥해야 한다. 내가 수년간 가르쳐 온 것처럼, 열렬하고 믿음으로 가득 찬 집중된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말을 남겼다.

강혜진 기자

트럼프-젤렌스키 회담 결렬… 미국,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 시사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 ⓒ현지 영상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회담이 갈등 속에 결렬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 가능성을 시사했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CNN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에 출연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와 비교하며,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을 위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왈츠 보좌관은 "처칠은 국민을 위해 싸웠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를 위해 맞서 싸웠다"면서도 "하지만 처칠도 1945년 퇴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고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불확실하다"며 "궁극적으로 러시아와 협상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사임을 원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왈츠 보좌관은 "우리를 상대하고, 러시아와 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개인적 혹은 정치적 동기가 전쟁 지속과 연관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담 결렬 원인…젤렌스키 태도 문제 삼아

왈츠 보좌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태도가 회담 결렬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협상 의지가 전혀 없었다"며 "푸틴 대통령과 협상을 진행하고 전쟁을 끝내겠다는 우리의 목표를 공유하는지도 불분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국가를 위해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며 "이대로는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진정으로 평화 협상에 참여할 준비가 된다면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며 협상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법이나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왈츠 보좌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회담 중 보인 몸짓과 태도를 문제 삼으며 "고개를 흔드는 행동, 팔짱을 끼는 모습 등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례했다"고 비판했다.

◈미국 재무장관 "평화 협정 없이는 경제 협상 불가능"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도 CBS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평화 협정 없이 경제 협정을 맺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평화 협정을 원해야 경제 협상이 가능하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상을 진행하길 원하는지, 아니면 전투를 지속하길 원하는지를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지도자는 국민이 결정"

젤렌스키 대통령은 런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지도자를 외부 세력이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나토(NATO)에 가입할 수 있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나,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홍은혜 기자

美 플로리다 성공회 교회, 3천 번째 세례교인 축하 행사



미국 플로리다 사라소타리디머교회가 3,000번째와 3,001번째 세례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사라소타리디머교회

미국 플로리다에 소재한 한 성공회 교회가 교단 전체의 쇠퇴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인 수 3천 명이라는 이정표를 달성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사라소타리디머교회(Church of the Redeemer of Sarasota)는 지난 2월 16일(이하 현지 시각) 케이시 제인 클레그와 루비 메이 스피어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교인 수가 3천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교회는 CP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두 아기는 각각 3,000번째와 3,001번째로 세례를 받았고, 교구는 두 숫자를 나타낸 금색 풍선으로 이 행사를 축하했다. 두 아기는 세례가 끝나자마자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전했다.

교회 사제인 찰스턴 윌슨 신부는 "하나님의 손길이 '리디머(교회 이름)'에 분명히 역사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놀라운 이정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이제 우리의 초점은 새로운 기독교인을 만드는 것과 모든 기독교인을 새롭게 만드는 데 두 배로 집중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사라소타리디머교회에는 새 신자가 지난해 150명, 올해는 47명 등록했다. 이러한 성장은 최근 수십년 동안 상당한 쇠퇴를 겪은 미국성공회 교단과는 극명하게 대조적이다.

2010년 미국성공회의 교인 수는 20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수치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이 교단의 교인 수는 약 154만 7,000명이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예배 출석자 수는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출석자 수가 2023년에는 약 41만 1,000명, 2022년에는 약 37만 3,000명, 2021년에는 약 31만 2,000명이었다.

강혜진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철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 1부 07:30AM - 2부 09:15AM - 3부 11:00AM
EM 주일예배 - 1부 09:00AM - 2부 11:00AM
새벽예배 - 평일(월-금) 05:00AM - 토요 예배 06: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Youth (6th ~ 12th)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KM) 오전 10:30
주일예배(EM) 오전 10:30
유년부(K-2) 오전 10:30
초등부(3-5) 오전 10:30
중,고등부(Youth) 오전 10:30
대학청년부(College) 오전 10:3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2:4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 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뎀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 2부 오후12: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아가페홀) 오전11:00
영어부예배(믿음채플)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주일 2부 9:30AM
주일 3부 11:15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중고등부 9:30AM/11:15AM
수요기도회 7:30PM
새벽예배 월~토 5:30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어노인팅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오전 9:00
EM예배 (2부)오전 11: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Newhall, CA 91321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밸리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1:30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818)363-5887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패니쉬)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오전11:00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토요새벽예배 오전 7:00 E. lvkc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낮예배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joeun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바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주님미디어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찹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NATURE'S TREASURE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기억력 개선
피로 회복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5 목 넘김이 쉬운
비타민 D3 5,000 IU
120 베지터블 캡슐 $8.80
D3 5,000 IU 선사인 비타민!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베지터블 캡슐 $11.99
당신의 건강과 뷰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본부터 끌어올려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캘리포니아 무료 학자금 신청하세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올 가을 대학 지원자들에게 학자금 신청을 연장했다.

가주 학자금 위원회(CSAC)는 27일 가주 학자금 지원 신청서(CADAA)의 접수 기간을 4월 2일(수)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에서 주관한 언론 브리핑에서 CSAC 데이지 곤잘레스사무국장은 "더 많은 저소득층 가정 출신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SAC 에 따르면 주정부가 지급하는 학자금은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주정부 지원 학자금은 캘그랜트 외에 장학금, 근로 장학금, 학비 융자를 포함한다. 학생들은 이를 학비와 교재비, 교통 및 숙식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캘그랜트 A와 B는 2024-25학년도 기준으로 UC 지원자의 경우 연간 최대 1만 4,436달러, 캘스테이트는 6,084달러, 사립대 9,358달러를 지원한다.

커뮤니티 칼리지나 직업훈련학교 재학생의 경우 캘그랜트 B와 C를 통해 학비로 연간 최대 1648 달러, 교재비 등으로 547~1094 달러를 제공한다.

UC 총장실 산하 학비지원 담당 부학장인 숀 브리크는 학자금 신청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학비 혜택을 받고 대학 교육을 받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UC 는 지난 2022 년 가을학기부터 신입생과 편입생을 대상으로 등록 당시의 학부 등록금을 최대 6 년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플랜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은 학생들이 대학 재학 기간 동안 등록금 인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브리크 부학장은 "가능한 마감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서류가 준비됐다면 미리 신청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학자금 규모와 정보를 미리 받는 것이 좋다"며 "자신의 옵션을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해 대학을 결정하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카탈리나 시푸엔테 CSAC 위원장은 "가주 학자금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들의 정보는 보호받는다"고 강조했다. 단, 연방학자금신청서(FAFSA)의 경우 신청자의 정보를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향후 변경될 수 있다. 불법체류 기록이나 범죄 기록 등이 연방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신청자는 주의가 필요하다.

문의: (888)224-7668 CSAC 학생 지원 콜센터, www.csac.ca.gov

기사 제공: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

선교사 자녀 대상 예술 공모전

선교사 자녀들의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미술 공모전, '가온의 빛' 프로젝트 H.O.P.E 미술 공모전이 오는 3월 25일까지 진행된다. '가온'은 순우리말로 '중심'을 의미하며, 히브리어로는 '탁월함'이라는 뜻을 지닌다. '가온의 빛' 프로젝트는 각자의 재능과 탁월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꿈과 소망이 세상 속에 펼쳐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가정의 자녀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특별히 '선교사 자녀를 위한 미술 공모전'으로 기획되었다.

예술로 피어나는 희망의 메시지

가온 갤러리의 제니퍼 홍 디렉터는 "세계 각지에서 아이들의 그림을 받고 있는데, 작품 설명을 통해 그들의 아름다운 신앙과 놀라운 통찰을 보며 오히려 주최 측이 큰 감동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박수정 부디렉터는, "이 아이들은 마치 감춰진 보석처럼 아직은 꿈을 펼치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며 깊은 감동을 표현했다.

협찬 기관인 '알파 멘토링'의 코버트 김 원장은 "선교사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역으로 인해 선교지에서 자라지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정체성과 재능을 부여받은 존재임을 꼭 발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또한, 지니 김 부원장은 "아이들이 자신 안에 있는 소망을 묵상하며 표현하는 동안, 참된 희망이 피어날 것을 믿으며 앞으로 어떠한 역경도 헤쳐나갈 큰 힘을 얻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공모전 개요 및 참가 안내

'소망의 빛을 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의 선교사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회화, 일러스트, 디지털 아트를 포함한 모든 미술 장르의 출품이 가능하다.

수상 혜택: 총 10,000달러의 상금이 수여되며, 수상작은 가온갤러리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전시 및 홍보될 예정이다.

출품 규격: 작품 크기는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나, 운송 및 전시가 가능한 범위 내여야 한다.

출품 방법: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작품을 안전하게 포장하여 지정된 주소로 보내면 된다. 작품명,작가 이름, 연령, 그리고 3~5줄의 간단한 작품 설명을 동봉해야 한다.

유의 사항: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저작권 침해가 확인될 경우 심사 및 시상이 취소될 수 있다. 제출된 작품은 반환되지 않는다.

이번 공모전은 가온갤러리와 미주복음방송이 공동 주관하며, '알파 멘토링'과 '스캇앤제이 갤러리'가 협찬한다. 작품 제출 마감일은 3월 25일까지이며, 접수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으로 선정된다. 기사제공: 미주복음방송

문의: gaonartgallery@gmail.com

작품 제출 주소: 6186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참가신청: https://forms.gle/RJEAw-Lo8EN3TEnAVA

목회자, 선교사, 신학생 위한 무료 세금 보고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가 주관하는 목회자, 선교사, 신학생을 위한 2024년도 무료 Tax Return E-file 서비스 이벤트가 3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매주 수요일 진행된다.

이번 서비스 이벤트는 목회자, 선교사, 신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세금 보고 준비와 세법에서 정해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신고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등록은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 웹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일정: 3월 5일, 12일, 26일, 4월 2일, 9일 (수) 오후 3: 30 ~ 6: 30 (3시간)

장소: 7342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lifornia 90621 (B-115 강의실)

웹사이트: ICMM 선교회 홈페이지 http://churchhomepage.org

문의: 949-667-0264 (J. Lee, JDSN), 714-393-4595 (Center)

이메일: icmm@churchhomepage.org

단신

▶ 포모나 언약교회 호성기 목사 초청 부흥회 3/7-9

포모나 언약교회(담임 장수영 목사)가 3월 7일부터 9일까지 세계 전문인선교회 국제대표 호성기 목사를 초청해 춘계 부흥회를 연다.

7일(금) 저녁 7시, 8일(토) 오전 6시와 오후 5시, 9일(주일) 오전 11시.

▶ 보나뮤직 한국 동요대회

보나뮤직(BONA Music, 대표 이혜자)이 3월 8일(토) 오후 4시 미주평안교회(170 Bimini PL)에서 '2025 보나뮤직 동요대회 위너 콘서트'를 개최한다.

▶ 동행과 상생 포럼

미주 한인교회들의 다음세대 부흥과 교육을 위한 〈동행과 상생 포럼〉이 오는 3월 10일(월) 오전 11시 30분, 미주복음방송(KGBC)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트럼프 2.0 공교육과 교회학교" 및 "교육목회자 절대 부족과 대안"라는 두 가지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미국 내 한인교회 교육 시스템의 변화와 차세대 교육 목회자의 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의 및 등록 웹사이트:** www.TNTUSA.org

▶ 주님세운교회 신용환 담임목사 취임식

주님세운교회가 3월 16일(주일) 오후 4시 박성규 원로 목사 추대 및 신용환 담임 목사 취임식을 거행한다.

교회 주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 감사한인교회 창립 42주년

3월 14일-15일(금-토) 교회 본당에서 부흥성회를 개최한다. 강사는 진유철 목사.

14일(금) 저녁 7:30 15일(토) 오전 6시, 저녁 7:30

송재호 칼럼

습 관–마가복음 1장 35절



송 재 호 목사
할렐루야 한인교회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배운 습관이 있다. 듀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행동 중 45%는 결정이 아니라 습관에서 나온다고 한다. 이처럼 습관은 우리에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의 힘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

물론 습관은 쉽게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수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나면서부터 천부적으로 습관이 재능으로 나타날 때도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삶을 바꾸기 위해서 쉬지 않고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서 훈련에 힘쓰기도 한다. 그렇다. 우리가 별생각 없이 보내는 자투리 시간도 모으면 어마어마한 양의 시간이 된다. 무엇보다 그 시간을 반복적으로 습관을 훈련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게 되면 새로운 나 자신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런데 우리의 일생 뿐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위대한 신앙은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대 기독교 사상가 중 으뜸으로 꼽히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앙생활을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신앙의 습관이 연습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사람들은 그 몸에 거룩한 습관이 하나, 둘 더해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 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협하는 잘못된 습관을 과감하게 버리고, 영적 성숙을 위한 거룩한 습관을 훈련하는데 힘써야 한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특별한 모습을 조명하고 있다. 본문 35절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사역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새벽 이른 시간을 깨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습관을 실천하셨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습관은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거룩한 영성과 신앙의 습관은 깊은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처럼 이러한 거룩한 습관을 훈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찰스 두히그(Charles Duhigg)가 쓴 "습관의 힘" (The Power of Habit)이라는 책에는 새들백교회(Saddleback Church)의 릭 워렌(Rick Warren) 목사의 인터뷰가 소개되어 있다. 이 인터뷰에서 릭 워렌 목사는 새들백교회가 지향하는 신앙의 핵심은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는 데에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신앙은 우리의 습관과의 싸움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신앙은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습관의 연속에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다.

거룩한 삶을 위협하는 잘못된 습관을 과감히 버리고 새롭게 다듬어 나가야 할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손매남 칼럼

공감과 온정의 뇌, 전대상회의 기능이다(1)



손 매 남 박사
한국상담개발원 원장

전대상회는 변연계와 전전두엽 사이에 있는데, 신경학적인 심장으로서 신에게 다정함(Loving)을 느끼는 뇌의 부위로 알려져 있다. 자극을 받으면 화를 내거나 겁을 먹는 충동을 억제한다. 전대상회는 사회적 상황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필수적인 많은 기능을 수행하며, 또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감지하고 갈등을 다루는 전략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우리의 불안이나 두려움, 죄책감이나 분노를 감소시키고 학습이나 기억, 집중적인 주의에 관여하기도 한다. 명상이나 관상기도는 전대상회의 활동을 자극한다. 관상기도나 깊은 명상(묵상)은 두정엽의 활동을 감소시키며 신과 합일화를 이룬다, 오순절 신자들이 성령체험을 하면 두정엽 활동은 증가된다.

전대상회에는 폰 에코노모 뉴런(Von Economo Neuron)이라 불리는 방추형세포(Spindle-shaped Cell)가 집단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인간을 비롯, 유인원, 그리고 고래에서 발견된다. 이 뉴런들의 연결고리는 뇌의 다른 부분과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사고, 느낌, 그리고 행동을 통합하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 발달에 밀접하게 관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뉴런들은 우리를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감정으로 인도한다.

방추형 세포는 출생 후 출현하고 경험 의존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관계의 생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매혹적인 세포이다. 어린 시절 방치나 스트레스 외상은 방추형 세포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이 뉴런들의 기능이 저하되지만 사랑, 소통, 그리고 감각 및 지적 자극이 풍부한 데 자신을 노출시키면 폰 에코노모 뉴런과 전측대상회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동시에 전대상회의 활동을 자극한다. 그래서 영적 수행은 전대상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적 인식과 온정을 강화시킨다. 또한 폰 에코노모 뉴런은 알츠하이머병과 다른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퇴화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인지장애가 있는 환자들이 하루에 단 12분간의 명상을 수행한 것만으로도 자신들의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이는 영적수행이 희귀한 이 영장류 뉴런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대상회는 전두엽과 변연계 사이의 활동을 조절하고 균형을 이루는 일종의 받침점 역할을 한다. 공포를 일으키는 편도체를 포함하고 있는 감정중추의 변연계는 논리, 이성, 그리고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지닌 전두엽 간의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전대상회는 인지와 정서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며 인지적 융통성을 발휘한다.

전대상회는 느낌과 사고의 균형을 맞추는 받침대 역할을 한다. 너무 감정에 치우치면 변연계로 혈액이 들어가서 편도체의 경계심, 방어력, 공포심을 자극한다. 마치 시소처럼 변연계에서 활동이 증가되면 전두엽에서 활동이 감소된다. 따라서 분노, 또는 불안해지면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인 활동이 중단되고 인지기능이 억제된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대상회의 활동은 멈추게 되고 공감과 직관력은 떨어지고 타인이 어떻게 느끼는지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에 전두엽이 활성화되면 전대상회를 자극하는데 이것이 편도체 활동을 느리게 만든다. 따라서 논리와 이성이 분노와 공포를 가라앉힌다. 이러한 작동 원리는 간단하다. 가상 시소의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은 내려가는 것과 같다.

그러나 전대상회가 손상을 입게 되면 공감능력이 떨어지고 함묵증이 생길 수 있으며 모성행동이나 표현력이 감소되고 정서가 불안정하고 충동성이나 과잉행동을 하게 된다. 전대상회가 뇌졸중, 병변 등으로 손상되거나 심지어 지나치게 흥분되면 모든 것이 균형을 잃게 된다. 따라서 명상과 영적수행과 같은 내적 인도자를 양성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명상과 영적수행은 전대상회를 자극하는 전두엽을 강화시키며, 이를 통해 의식적으로 더 큰 목표와 평온함을 이루어 삶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 〈계속〉

하늘바라기

걱정하지마 -김은주



걱정하지마
붕어처럼 뻐끔뻐끔 이라도
숨쉬고 있어

걱정하지마
아지랑이 피어오르듯
나의 온기는 피어올라

걱정하지마
곧 아침해가 돋아 환하게 맞아주듯
주님이 안찰하실 거야

김은주 시인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뉴질랜드에서 9년간 자비량 선교를 했다. 캘리포니아 프리스티지대학교에서 "선교학적 관점에서 본 선교사 탈진에 관한 비평적 통찰"이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Ph.D.)를 받았다. 2024년 미주한인기독문인협회 신인상을 수상했으며 「울타리글벗문학회」 회원, 「미주한인기독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5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 성 대 학 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ks@mbts.edu

SINCE 1977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켜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랜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 음 대 학 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 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is.org
학교주소 | 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 aurahelio@gmail.com
전화 |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PEMF 와 Tera Hertz 테라헤르츠가 만나다! 테라 P-90

세계 최초의 최첨단 신기술을 이용한 30분의 기적!

무료체험하러 오세요!



자연요법, 대체 의학, 예방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 전문가들의 추천

우주인에게 사용되는 PEMF, 생명의 빛 테라헤르츠파로 생성된 올리라이프 테라P-90
PEMF(지구자기장) + THz(빛 파장) + Earthing (땅 에너지) 가 결합된 제품

1. PEMF 전자기 펄스를 발생, 발바닥에서 온 몸으로 열에너지 전달 혈액순환촉진에 도움
2. 테라헤르츠파가 피부에 침투하여 인체의 미세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데 도움
3. 땅에 어씽한 것처럼 전자를 유입하여 활성산소를 중화하는데 도움을 줌

PEMF란?

지구자기장으로 NASA에서 우주인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주에서 장기간 머무는 비행사들은 지구자기장의 영향권 밖에 있기 때문에 뼈와 근육의 손실이 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주비행사들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10여년 전만해도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비행사들은 90일간 PEMF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주에서 머무는 동안 근육손실과 뼈의 약화 등에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PEMF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테라P-90의 의미도 최소한 90일간의 PEMF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테라 P-90을 30분 사용시 얻을 수 있는 동일한 성과

- 2시간 운동 성과 (근육활성)
- 뜸 10회 (체온상승)
- 부황 20회 (혈액순환)
- 마사지 30회
- 훈욕 1시간
- 피부 스켈링 60회 (리프팅)

테라 P90의 효과

- 세포에너지 생성에 도움
-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에 도움
- 신진대사에 도움
- 독소배출(림프)에 도움
- 수면장애에 도움
- 통증과 염증에 도움
- 면역건강 보조
- 뇌건강과 인지능력 증가에 도움
- 우울증/스트레스에 도움
- 지방연소에 도움
- 피로에 도움
- 안티 에이징에 도움
- 시력향상에 도움
- 폐와 신장기능강화에 도움

FDA, SGS, OPMS, ISO 세계적으로 특허 및 승인 받은 제품 158개국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 하나의 디바이스로 온가족이 함께!

테라헤르츠와 PEMF의 시너지, 최첨단 건강 혁신! 두 가지 혁신 기술의 만남으로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체험수기

"저는 한의사로서 다양한 치료법을 경험해왔습니다. 테라 P-90를 사용해본 결과, 정말 놀라운 효과를 느꼈습니다. 이 기기는 깊은 조직까지 침투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테라 P-90는 비침습적이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환자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 Y*** 한의사

"정형외과에서 테라 P-90를 도입한 이후,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과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전자기장이 깊은 조직에 작용하여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며, 치료 효과를 빠르게 증진시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치료 후 더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테라 P-90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 J****** 정형외과 의사

"테라 P-90는 물리치료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빠른 회복을 지원합니다. 제 환자들이 테라 P-90를 사용한 후, 통증이 줄어들고 운동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치료 세션에 테라 P-90를 포함시키는 것은 환자들의 재활 과정을 크게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 M** 물리치료사

"피부과에서 테라 P-90를 사용하여 염증성 피부 질환과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기장이 피부 깊숙이 작용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환자들의 피부 상태가 개선되고, 치료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 도구로 테라 P-90를 추천합니다." - L** 피부과 의사

grace.olylifeglobal.com 웹사이트 주문 후 2주 후 물건도착

문의 213-434-1170 무료체험 (오시기전 예약필수 월~목 : 오전 11시 ~ 오후 2시)

3055 Wilshirte Blvd #480 ., LA, CA 90010

* 건강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건강과 비지니스 기회를 원하시면 지금 연락주십시오.

구봉주 칼럼

AI: Plologue



구 봉 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성경이 증거하는 종말, 마지막 때(End Time)에 관한 이야기는 여전히 귀를 솔깃하게 하지만, 이제는 그다지 인기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인데, 그 가운데 현실적인 이유 중 한가지는 갈수록 삶이 분주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삶이 풍성해졌는데, 여유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풍요 속 빈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기독교를 믿는 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신입니다. 마치,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하던 소년이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거짓말을 일삼다, 실제 늑대가 나타났을 때에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것과 같이, 역사적으로 거짓 종말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종말론을 그저 음모론 혹은 호기심거리로 비춰지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관한 건전하고 올바른 성경적 개념을 정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는 믿는 자로 하여금 깨어 있는 산 믿음, 즉 믿음의 신선도(Freshness)를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언제 인지 자신은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동시에 깨어 있으라", "때가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때가 갑자기 도래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을 사칭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 경고하신 것처럼, 종말에 대한 수많은 거짓 정보와 오해와 폐단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은 마지막 때가 오고 있음에 대해 예의 주시하며,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력과 영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순결함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마지막 때에 지켜내야 할 것은 목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크리스천이 AI(인공지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느냐?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은 국가적 차원에서 AI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AI가 세상을 바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AI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간의 법과 제도 윤리 심지어 종교와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단순한 예로, 거의 사람의 판단과 동작과 흡사한 AI로봇이 개발되어, 사람의 일을 대체하게 되면, 직장, 직업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AI를 연구하는 직업과 AI를 만들고 고치는 산업, AI 기술로 다치고 병든 사람의 육체적 기능을 보완하는 의료공학분야 외에 인간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일자리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유토피아가 올 도 있고, 일하지 못해 먹고 살기 어려운 디스토피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판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의 경제 시스템이 생산 수단을 국가나 공동체가 관리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분배를 조정하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AI가 올 변화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예측은 과학과 경제를 아는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책과 강연에 언급한 사실들입니다.

그렇다고, 본서가 AI의 정체를 밝힌다거나, "AI의 무서움을 알고 경계하자", "AI는 종말의 징조다"라는 종말론적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AI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시대를 분별함과 동시에 성경 말씀이 곧 진리이며, 믿는 자가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도(啓導: enlightenment)케 하기 위함입니다. (계속)

한남옥 칼럼

내가 고통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한 남 옥 권사
시인, 수필가
나성영락교회 권사

'응아!'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전 생애에 걸쳐 여러 가지 고통을 맞닥뜨리게 된다. 때론 질병, 사고, 배신, 상실과 같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를 짓누른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요?' 하며 고통 가운데 몸부림할 때 하나님은 정말 어디에 계실까?

필립 얀시는 미국의 기독교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이다. 그는 신앙과 삶의 문제를 깊이 탐구하는 글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하나님, 나는 당신께 누구입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집필했으며, 인간의 고통, 신앙의 의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전하고 있다.

그의 책 '내가 고통 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에서는 고통에 대하여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질문하며 고통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눈다. 고통의 의미를 탐구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왜 고통이 존재할까?

많은 사람들은 고통이 없는 세상을 꿈꾼다. 그러나 심리학에서는 고통이 우리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가령 어린아이가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와 같은 이해되지 않는 고통은 왜 존재할까? 통제 소재(Locust of control)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을 때 더 건강한 심리적 회복력을 가진다. 하지만 고통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을 때, 통제감을 상실하고 절망에 빠지기 쉽다.

저자 역시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이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라고 말한다. 실제로 그의 책에서는 '조니 에릭슨 타다'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그녀는 17세 때 다이빙 사고로 전신 마비가 되었지만, 이후 신앙을 통해 고통을 받아들이고 장애인을 위한 사역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 처음에는 절망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지만, 점차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서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 또한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의 사례도 언급된다. 그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며, 희망을 가진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은 사람을 더욱 절망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잃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저자는 '오직 인간만이, 본능적인 행동에서 벗어나 스스로 결정하는 선택권을 갖고있다'고 말한다. 고통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도움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배울 수도 있으며,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할 수도 있다.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둘째로 '고통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하는 질문이다.

고통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쿠블러-로스(Kübler-Ross)의 5단계 애도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단계를 거치며 고통을 경험한다. 성경에서도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그분의 응답을 기다린다. 필립 얀시 역시 이러한 반응을 설명하면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을 잃고, 어떤 이들은 더욱 하나님을 찾으며 신앙이 깊어진다고 말한다. 실제로 욥은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으며, 다윗은 시편에서 자신의 아픔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심리 상담에서도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치유의 중요한 과정임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고통에 대처할 수 있을까?'이다.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을까? 필립 얀시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고통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신다. 둘째, 고통을 통해 이웃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공감 이론(empathy theory)에 따르면, 상실과 아픔을 겪은 사람들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관계적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라고 권면한다.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은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심리적 회복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필립 얀시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강조한다. 심리적으로도, 우리는 삶에서 통제할 수 없는 요소가 많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을 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다. 이 책을 통해 고통 속에 울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얻으면 좋겠다. 고통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것이다.




ACTION CAMP에
오셔서 힐링하세요!
가족, 친구, 성도분들과 멋진 여행을 통해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Action Camp 장은…
Camping
Music Festival
PCT Hiker
Church Retreat
Youth Group
Retreat
Cabin Town
Movie Night
미국내 가장 좋은 시설여건, 서비스
1 교회 수련회, 단체 할인 혜택
2 단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연장과 야외 영화도 볼 수 있는 스크린 설치
3 샤워장, 공연장, 카페, 수영장, 배구장, 농구장, 놀이터
4 야외 파티와 행사를 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위락시설
5 디럭스 캐빈(Deluxe Cabin), 오토 캠핑(RV), 인디안텐트(TeePee), 텐트(Tent)장 주변에 전기, 수도, 식탁, 하수도 시설
6 회원의 경우 캠프사이트나 캐빈을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
ACTION CAMP
FAITH & HOPE
www.actioncamp.cc / larvresort.com
ACTION CAMP
HEALING
EDUTAINMENT
SPORT
MEDIA
GREEN
전화예약 or 온라인예약
T. 661-268-1214
7601 Soledad Canyon Rd. Action CA 93510
Scan me!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라

십자가 복음에 도전은 계속될 것… 그럴수록!



패커, 기독교에 대한 도전에 답하다

제임스 패커 | 전의우 역 | 생명의말씀사 | 232쪽 | 18,000원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곳마다 끊임없이 문제를 겪었다. 그가 "십자가의 도" 를 전했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는 유대인의 기대를 배반했고 헬라인의 필요와는 무관했다. 이 두 가지 반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회의주의, 합리주의, 급진주의와 같은 이름으로 살아있다

패커는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나눌 수 있는지, 바울과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를 연구하며 복음 중심의 답변을 제공한다. 다양한 세계관에서 비롯되는 기독교에 대한 질문과 의심을 피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신자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다

제임스 패커. 20세기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신학자, 청교도 신앙을 추구하며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잘 알려진 저자. 설명이 더 필요 없는 패커의 유고 중 하나인 〈패커, 기독교에 대한 도전에 답하다〉가 출간됐다.

가장 최근 나온 책이지만, 아주 오래된 강연을 담고 있다(두 장소에서 같은 강연을 함): 1978년 리폼드 칼리지 베이커 미션 강연(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 1978년 무어 신학대학 강연(호주, 시드니). 원서 제목은 'Proclaiming Christ in Pluralistic Age: The 1978 Lectures'이다. '다원주의 시대에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다. 강연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처음 복음이 선포됐을 때부터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한 도전이 있었지만, 오늘날 그 도전은 더욱더 대담해졌다. 기독교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공격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패커는 각각의 장에서 여러 가지 도전에 관한 답을 주면서,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십자가에서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 등을 변호하면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할 것(고전 2:2)"을 요청한다.1978년의 강연이 2024년에 얼마나 적실하며 의미 있을까? 흥미롭게도 패커가 우려했던 당시의 신학적 도전들(자유주의, 혼합주의, 세속적 인본주의 등 다원주의의 영향을 받은 신학적 논쟁들)이 이제는 거의 정리돼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패커의 유고는 적실하고 유의미하다.

오히려 다원주의적 사고가 신학계를 잠식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 말할 수 있겠다. '자유주의'는 뭔가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도, 신학자나 목회자에게는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그들의 성경 해석과 교리 체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해석을 입술로는 주창해도 실제로는 인본주의적 성경 해석을 추구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만일 패커가 살아있다면, 이 책의 내용은 간소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두꺼워졌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던 자들은 중세 시대에 다 정리된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지금도 역사적 예수를 찾아 헤매는 이들은 성경의 증언에서 이성에 반하는 여러 가지 기록을 제거하려 애쓰고 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신성이 벗겨진 인간 예수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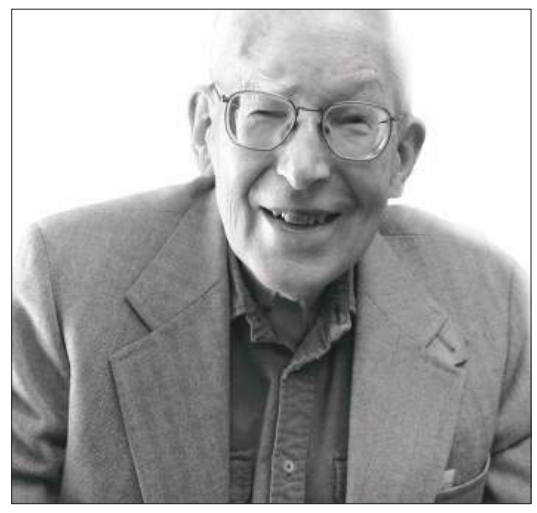
반대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려는 이들도 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요일 4:2-3)"라고 경고했던 것처럼, 지금도 적그리스도의 영이 가르칠 만한 오류를 퍼뜨리는 자들이 제법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또한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 '새 관점'을 주장하는 이들은 십자가에 대속 개념이 없다고 말한다. 형벌 대속(penal substitution) 또는 형벌 만족(penal satisfaction) 개념은 십자가의 중심이다. 이것이 빠지면 십자가는 단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얼마나 대단한 원수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본보기만 될 뿐이고, 그것은 죄인을 거듭나게 하고 거룩하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의 정당함을 입증하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뿐인 아들을 합당한 목적도 없이 잔인하고 모욕적인 사형틀로 내몬 무자비한 아버지로 하나님을 매도한다.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길이라는 선언은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자(요 14:6), 사도들의 증언과 일치한다(행 4:12). 만일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일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희생을 치르실 필요가 없었다.

기독교의 배타성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이들이 타협하면서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께 도달할 방법이 어느 정도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일한 길을 배척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그런 발언을 했다가 주님께 '사탄적'이라고 꾸지람을 받지 않았는가?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대변했다: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렘 18:1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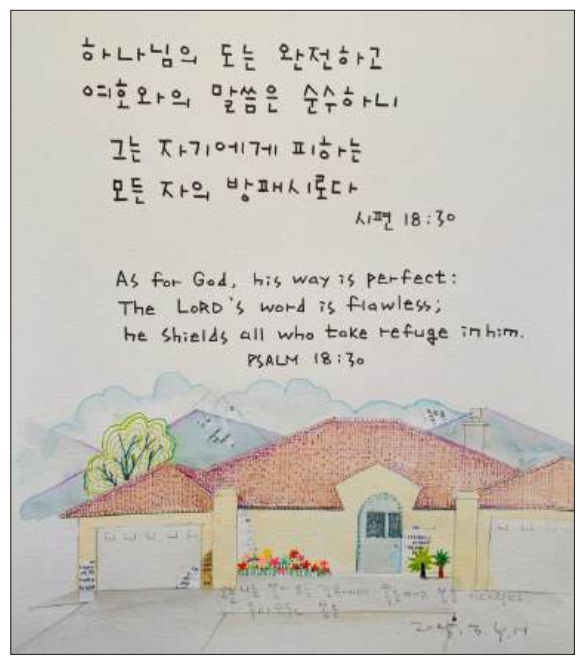
제임스 패커 박사. ⓒTGC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에 대한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허무한 것을 따르지 말고 곁길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우리의 길, 곧 그 옛 길로 가야 한다.

성경은 그 옛 길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좁은 옛 길로 정진하라는 패커의 우렁한 목소리를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가 경청하여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선의의 경쟁〉 (2)

〈선의의 경쟁〉 속 처참한 공교육 대안, 성경 중심 교육체계뿐

현 교육체계, 일제강점기 정립된 근대 국민교육 방식 그대로 답습
양적 공리주의 교육관 사상 기초
사회 행복 총량 많을수록 긍정적



〈선의의 경쟁〉은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삼는 드라마로서, 가장 각박한 입시경쟁이 펼쳐지는 채화여고 3학년 학생들 사이의 권력투쟁을 중심소재로 삼고 있다.

공리주의 교육: 한국 교육체계 속 공리주의의 문제

〈선의의 경쟁〉에 등장하는 도덕적 규준이 결여된 학생과 학부모들의 모습은 세속화된 공교육 체계의 심각한 도덕적 빈약함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마치 근 20-30년 내 발생한 일로 간주한다. 그리고 1960-70년대 한국 교육계 분위기와 지금 공교육 현장의 분위기를 비교하는 데 주력한다. 이런 행태는 특히 당시 학창시절을 보낸 장년 세대에서 두드러진다. 그런데 사실 우리 공교육 체계의 도덕성 결여는 현재 장년 세대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생각보다 오래 지속돼 온 고질적 문제다.

1960-70년대라 해서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던 것은 아니다. 그 시절 학생들이 지금보다 더 예의범절을 갖추고 권위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은, 사실 공교육 현장에서의 인성교육보다 조선시대부터 전래된 가정 내 유교적 예절교육의 전통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성교육의 빈약함은 비단 한국 공교육 체계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속화된 근대 공교육 체계를 갖춘 거의 모든 나라에서 학생들의 덕과 윤리의식 함양 부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공교육 현장에서 전달해야 할 지식의 양과 질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갈수록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한 사회의 산업, 경제구조가 고도화될수록 교육자들이 학생들에게 전해야 할 지식의 양과 복잡함은 증대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급격한 산업화와 고도성장기를 거쳐 나름 경제 선진국 말석에 자리잡은 나라로 인정받고 있다. 한민족 역사상 가장 높은 국가적 위상을 누리는 현 시점에서, 국민들 각자 짊어져야 할 삶의 부담과 책임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서 삶의 부담과 책임이란 경제적 요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문화와 사회윤리, 시민의식, 품성 측면을 모두 포괄한다. 40-50년 전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건실함 수준보다, 오늘날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건실함의 수준이 훨씬 더 높아졌다. 한국 교육 체계는 교육 내용이 조금 바뀌긴 했어도, 기본적으로는 일제강점기 시절 정립된 근대 국민교육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 교육 체계는 기본적으로 공리주의 교육관,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자면 협소하게 규정된 양적 공리주의 교육관에 사상적 기초를 두고 있다.

양적 공리주의(quantitative utilitarianism)란 영국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이 주창한 사상으로, 사회적 효용의 양적 총량 증가를 도덕적 선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쉽게 말해 한 사회 구성원들이 느끼는 행복 총량이 증가한다면, 그 사회는 선한 사회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성경중심 교육: 일제시대 황민화 교육의 잔재 탈피

그렇다고 벤담이 사회 구성원의 말초적 쾌락과 만족감 양을 늘리는 데 주된 가치를 둔 것은 아니다. 그가 도덕적 선을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개념으로 치환한 것은 그의 시대에 아직 사회적 효용을 양적으로 측량할 이론적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저 유명한 표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내세웠을 때, 그는 분명 '행복'의 필수조건으로 정의와 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벤담의 공리주의에 암시된 도덕적 동기는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에 이르러 사상적으로 체계화·구체화된다. 밀은 행복이 양적으로만 아니라 질적으로, 즉 도덕적으로도 온전해야 한다는 질적 공리주의(qualitative utilitarianism)를 이론화해 벤담 공리주의를 계승, 보완한다.

우리 한국에 처음 이식된 근대 교육체계는 원래 밀이 주장한 질적 공리주의가 추구하는 바와 유사하게, 도덕적 선의지와 그 실천을 강조하고 힘써 가르쳤다. 이는 한국에 처음 근대적 교육 체계를 이식한 이들이 주로 북미에서 건너온 개신교 선교사들이었기 때문이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튼, 마펫 등이 설립한 한국 최초 근대 교육기관은 모두 온전한 기독교 신앙인을 길러내는 데 궁극적 목표를 두고 있었다. 그래서 정규교육 과정에 반드시 성경 과목을 넣어 기독교적으로 온전하면서도 유교적 덕목과 조화를 이루는 선의지와 덕의 함양을 추구했다.

이런 교육방침은 김규식·안창호·이승만·윤동주·유관순을 비롯한 수많은 기독교인 독립운동가 탄생의 원동력이었다. 이들은 일본 제국이 야마토 정권을 신격화하고 그 후세인 일왕을 우상화하는 데 대해, 그리고 이런 우상화를 기반으로 정복 전쟁을 일삼는 강포하고 불의한 국가정체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국권뿐 아니라 문화와 정신, 그리고 도덕의식까지 일제로부터 완전하게 독립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미국 선교사들과 초기 한국 개신교계의 교육 체계는 비록 그 힘은 미약했지만, 지성과 인성 양측을 모두 훌륭하게 함양하는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모범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범적 교육 체계는 일제 황민화 교육의 압박 때문에 후대에 온전하게 이어지지 못했다.

일제 황민화 교육의 요체는 군국주의 일본의 핵심 권력층인 군부를 지탱하는 군인과 이들을 지원하는 기술자 양성에 있었다. 당연히 황민화 교육은 항상 '국체'(國體)를 위협하는 외부의 적을 만드는 호전성, 그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투에서 승리하는 폭력적 패권주의를 기본 정서로 삼고 있었다. 이는 군국주의적으로 기형화된 양적 공리주의 교육관을 반영한 것이었다. 일왕과 군부의 행복 총량 증가가 곧 황국신민의 행복 증가라는 거짓된 논리가 교육의 기본정서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한반도는 다행스럽게도 미국을 비롯한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국 덕분에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했지만, 사회 다른 여러 분야와 마찬가지로 교육 분야 역시 일제시대 체계를 대부분 그대로 이어받았다. 새로 어떤 체계를 구축하기에는 자원도 인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리고 황민화 교육 체계는 가르치는 내용만 바꾸면 정권에 맹목적으로 순복하는 기술자들을 길러내기에 적합했으므로, 해방 후 우리 사회 지도층은 굳이 기존 교육 체계에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해방 후 8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 한국 공교육 체계는 근본적으로 일제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자라나는 세대를 양육하고 있다. 다소 강압적 지식 주입과 경쟁 조장을 특징으로 삼는 현 한국 교육 체계는 단기간에 뛰어난 학력을 갖춘 학생들을 발굴하고 길러내는 데는 유용하다. 하지만 인성교육 측면에서는 처참할 정도로 빈약하다. 기독교적 선의지와 덕, 그리고 그 실천 방안을 가르치는 훌륭한 전통이 거의 실종되다시피 한 상황이라 학교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덕교육 기회를 거의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작금의 교육 현장에서 도덕과 윤리는 '생활과 윤리', 그리고 '도덕과 사상' 같은 수능 사회탐구 선택과목의 오지선다 문제거리로 인식될 뿐, 삶의 핵심가치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선의의 경쟁〉에 묘사된 채화여고 학생들의 비열한 경쟁의식과 비틀린 권력욕은 과거 황민화 교육이 주입했던 호전적이고 폭력적인 패권주의의 현대적 변용에 불과하다.

이 패권주의는 개발독재 시대 교육 체계에서는 반공의식으로, 문민 민주화 시대 교육 체계에서는 혁명적 민중주의와 민족주의로 그 양태를 달리했고, 현재는 순수한 배금주의로 돌변해 학생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다.

이 암담한 상황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온전한 인성교육을 회복하려면, 교회와 기독교인 교육자들이 역할이 필수적이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지성과 인성을 조화롭게 함양하는 데 성공했던 유일한 교육 체계는 기독교 선교사들과 교육자들이 마련한 성경 중심 교육체계였다.

이에 대한 자각과 고찰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을 파탄으로 몰아넣는 현재 우리 공교육 체계의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야 한다.



어떻게 참가할까요?

개인 월드쉐어USA로 사순절 나눔의 금식에 참가 통보 (가능한 미리 공지 및 통보 해주시면 사순절 기간을 더 잘 보낼 수 있습니다.)하시고, 사순절 금식 선교비를 월드쉐어USA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교회 나눔의 금식 참가의사를 월드쉐어USA에 알려 주시고, 성도들에게 참가를 권면하시고 성도들의 금식비 선교비를 월드쉐어 USA로 전달하십니다.

월드쉐어 USA 아이티, 수리남, 도미니카의 극빈지역 아동들과 고아원 아동들의 사순절 기간에 양육 프로그램과 영혼을 위한 빵을 나누는 SBS (Sharing Bread for Soul)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2025 사순절 나눔의 금식 준비위원회



민경엽 목사 준비위원장
박세헌 목사 부 준비위원장
김영일 목사 준비위원
안신기 목사 준비위원
양경선 목사 준비위원
최국현 목사 준비위원



이인규 목사 준비위원
써니김 목사 준비위원
김은목 목사 준비위원
진건호 목사 준비위원
양국민 목사 준비위원
김정호 목사 준비위원

Sharing Bread for Soul World ShareUSA
후원문의 (323)578-7933 강태광 목사
3123 W. 8th St. #206, Los Angeles, CA 90005

미션스쿨 한동대 학생들도 "탄핵 반대" 시국 선언

학생들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행동"

여러 대학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표적인 미션스쿨인 한동대학교 학생들도 이에 동참했다. 한동대 학생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경북 포항 한동대 정문 앞에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사망 선고'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시국선언은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이후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22학번 임수진 학생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임수진 학생은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탄핵과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자행되어지는 불법들이 바로 잡히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였다"며 "우리 한동대학교는 초대 김영길 총장님께서 세우실 때, 많은 대학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이 되게 해달라고 늘 말씀하셨다. 오늘 이 시국 선언을 통해서 이 한동대학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대학으로 한동대가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사법부의 공정 · 정의로운 결정 촉구

한동대 법학과 23학번 김광석 학생은 '오직 공법을 물 같이 정의를 하수 같이 흘릴찌로다'라는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인용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실현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가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광석 학생은 특히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과정이 불법적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대통령을 체포 및 구속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고 했다. 또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당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점을 지적하며 "공수처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군사시설 보호법을 언급하며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대통령의 승낙 없이 진행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불법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국민을 받들며,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을 기만하며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공수처 해체를 촉구했다. 아울러 "자유 대한민국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사법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촉구한다"며 탄핵 반대 구호를 외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 계엄령, 국가적 위기 알기 위한 신호탄

이어 임수진 학생은 발언에 앞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낭독하고 거대 야당의 정치적 행태와 종북·종중 세력과의 연계 가능성을 지적했다. 임 학생은 "거대 야당이 29번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서 행정부의 주요 공직이 공석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라며 "또한, 주요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국회의원들의 연봉과 특수활동비를 증액했다. 이는 국정을 어지럽히는 행위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드론을 이용해 우리나라 주요 군사 시설을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례와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간첩을 처벌하는 법안 개정을 민주당 중심의 거대 야당이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2023년 민주노총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군사 기밀을 넘기고 반미 시위, 탄핵 선동, 선거 개입 등의 활동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국가적 위기를 알리기 위한 신호탄이었다"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법 행위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표적인 미션스쿨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최근 경북 포항 한동대 정문 앞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주최측 제공

◆ 헌법재판소 각성해야

한동대 법학부 21학번 김태범 학생은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하는데, 현재의 헌법재판소는 그 원칙을 저버리고 있다"며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결론을 내놓고 형식적인 심판을 진행하는 모습"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한국법 전공 23학번 서민혁 학생은 "현재 우리는 체제 전쟁 중이다. 반국가세력과 싸우고 있으며, 그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중국이 한국을 정치, 문화, 언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격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오랫동안 이를 경고해왔다"고 했다.

또한 "반국가세력은 이들을 돕는 자들을 말한다"며, 그 중심에는 민주당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북한 정권을 더 챙기며, 대통령을 향한 탄핵 주장과 불합리한 정치적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의 '친중행각'과 사법부와의 밀접한 연관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현재의 정치 상황과 민주당의 행동을 단지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려는 의지로 계엄을 선언한 것은, 내란을 일으킨 세력에 대한 대응이었다. 누가 내란을 일으킨 것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벌여야 한다"고 했다.

서민혁 학생은 "자유민주주의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 앞에 놓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했다. 한동대 법학부 국제법 전공 24학번 정감송 학생은 자신의 가족 배경을 소개하며 "캄보디아에서 18년 동안 살다 온 선교사 자녀로서, 모국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가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는 세상에 따라 좌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정치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한동대 25학번 이재용 학생은 먼저, 잠언 3장 3절 말씀을 읽고,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는 탄핵 반대 시국선언과 관련해 "언론들이 이를 외부 극우세력의 목소리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진실성, 공정성, 객관성을 갖춘 언론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진실을 전달하는 언론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국선언은 김성준 학생의 폐회사 순서로 모두 마무리 됐다.

장요한 기자

트럼프 대통령,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 지속 추진 의지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 추진을 지속할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이 중단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는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협정"이라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 기금 마련을 명분으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광물 협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이 격렬한 논쟁 끝에 파행으로 마무리되면서 협상이 사실상 중단됐다.

당시 회담에서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대러시아 '외교' 방안을 언급했고,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하며 설전이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대전을 걸고 도박하는 것"이라며 젤렌스키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됐으며, 백악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포함한 지원 중단을 발표했다.

미국은 2022년 개전 이후 단일 국가로서는 가장 많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해왔다. 따라서 미국의 지원이 끊길 경우, 우크라이나가 향후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전황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CNN은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고위 참모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상황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 중단 결정은 회담 당일 늦은 시간 내려졌으며, 이는 일종의 압박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홍은혜 기자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귀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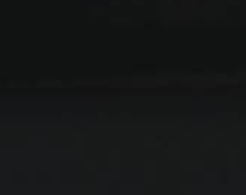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당신의 소중한 눈을 건강하게 지켜드립니다!

KISEIDO

EYE NOON EY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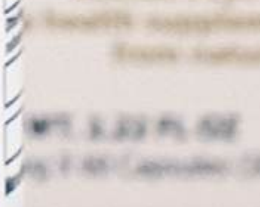
믿음의 이름, 귀생당에서 만든 이시대 최고의 눈 건강 영양제!

좁아진 시야, 흐려진 시야로 고생하는 당신을 위한 최고의 눈 영양제!
[귀생당 아이 눈 아이]는 슈퍼푸드라고 불리우는 청정 열매인 **마퀴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델피니딘, 루테인, 지아잔틴** 성분을 함께 구성하여 현대인의 눈 건강의 최적화와 눈 건강에 더욱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롭게 나온 눈 영양제입니다.


망막색소 재활성화


시력기능 향상


야간시력 개선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예방

하루에 2캡슐! 아이 눈 아이로 더 밝은 세상을 만나세요!

아이 눈 아이의 효능 효과

- 눈 기능 활성화, 눈 건강유지 및 보호
- 장시간 컴퓨터, 스마트 폰, TV, 등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눈의 피로 개선
- 백내장, 녹내장, 근시 및 AMD(황반변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 활성산소 완화
- 혈류 개선, 미세혈관 순환증가
- 심혈관, 뇌혈관 순환 도움
- 알츠하이머, 치매, 집중력, 인지능력 향상
- 장내 효소 증가
- 소화기능 개선
- 빈혈, 간 기능 개선
- 면역체계 향상

주요성분 안토시아닌,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델피니딘, 프로안토시아니딘, 피페린, 빌베리

• SINCE 1975 •
귀생당
KISEIDO U.S.A., Inc

1.800.909.0001 www.kiseidousa.com

These statements have not evaluated by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d disease.